

# Contents



신임학장 인사의 말씀 04

오페라 정기공연 - <라 보엠> 06

변함없는 음악가의 길 - 정년퇴임교수 인터뷰

김영욱 교수 (전임 음악대학장) 08  
박세원 명예교수 10  
김형배 명예교수 12

Masterpieces by SNU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회 14

교내연주회 16

SNU Strings

Spirit of SNU Strings 17

String Ensemble 18

SNU Winds

Wind Ensemble 18

Percussion Ensemble 19

국악의 향기

국악과 정기연주회 20

국악과 제1회 대학원 정기연주회 21

사회와 함께 하는 음악대학

관악구민과 함께하는\_ 화요음악회 22

희망과 감동의 음악\_ 병원음악회 24

감사합니다

이복련 여사님 - 故 전봉초 학장 사모님 26

국악과 김선화 명예교수 인터뷰 27

제주 사이프러스 리조트 강석영 사장님 28

성악과 동문(93학번) 배우 김혜은 28

강의실을 찾아서

합창으로 꽃핀 열정\_ 교양연주·합창 / 윤현주 교수 30

우리 시대의 교양\_ 현대음악의 이해 / 이석원 교수 31

언덕방

한국인과 한국음악\_ 김승근 교수 32

내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_ 이호영 주무관 33

리뷰 & 리포트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슬러 마스터 클래스 3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스튜디오2021 35

국제 타악 앙상블 주간(IPEW) 참가 39

음악대학, 시흥시와 '음악멘토링 사업' 40

음악교육 전문지도자 과정 신설 40

SNU 윈드 앙상블 재능기부 연주회 41

음악학 교류의 발판 42

굿바이 언덕방 44

음대 학생 휴게실 개소 45

브라보! 프라이즈 워너 46

학과 & 연구소 소식 48

교수 동정

추모하는 마음으로\_ 故 김용진, 이성균, 장정의 명예교수 50

학과별 교수 동정 52

동문 소식 60



Message from the Dean 04

Opera - <La bohème> 06

Interview of Retiring Professor

Prof. Young Uck Kim, former dean of the College of Music 08

Prof. Se-Won Park 10

Prof. Hyung-Bae Kim 12

Masterpieces by SNU

SNU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14

Campus Concert 16

SNU Strings

Spirit of SNU Strings 17

String Ensemble 18

SNU Winds

Wind Ensemble 18

Percussion Ensemble 19

Scent of Korean Music

Subscription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20

Inaugural Concert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Music 21

College of Music Outreach

SNU Tuesday Concerts 22

SNU Hospital Concerts 24

Appreciation

Mrs. Bok-Ryeon Lee 26

Emeritus Prof. Seon-Hwa Kim 27

Mr. Seok-Yeong Kang (Cypress Resort, Jeju) 28

Actress Hye-Eun Kim 28

Classroom

Music Performance - Chorus / Prof. Hyun-Joo Yun 30

Introduction to Modern Music / Prof. Suk Won Yi 31

Essay

Koreans and Korean Music / Prof. Sngkn Kim 32

The Reason to Be Happy / Ho-Yeong Lee 33

Review & Report

Masterclass - Menahem Pressler 34

SNU New Music Series Studio2021 · 2012 Autumn Season 35

International Percussion Ensemble Week 39

Siheung Youth Orchestra Mentorship 40

Music Instructor Course Established 40

SNU Wind Ensemble's Talent Donation Concert 41

Summary of The 2<sup>nd</sup> Seoul National University-Tokyo University Exchange Seminar in Musicology 42

Good Bye, Eondeokbang 44

Students Lounge Opened 45

Bravo! Prize Winner 46

Academic News 48

Faculty News

Obituaries 50

Faculty News 52

Alumni News 60



## 신임학장 인사의 말씀



어느덧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3월, 강추위가 기세를 떨쳤던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음악대학은 학내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의 위치와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제 비단 서울대학교 내에서만 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대학으로서 그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대학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한 걸음씩 노력해왔던 그간의 발자취를 이번 <음대 소식지>에 담아 보았습니다.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다양하고 활발한 음대의 연주활동,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리 음대 학생들, 그리고 최고의 위치에서 각 분야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활동이 모두 모아졌습니다.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함께하며, 우리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은 우리 음악대학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대학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음악대학을 이끌어 주신 김영욱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 받아 신임학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일해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김영욱

음악대학 학장 김 영 룰

## Message from the Dean

March has come, the month of fresh start and full of new hope where all of us make commitment to ourselves for better achievement, after the long winter- which of this year had especially been cold and severe. And now, under the warm and soft sunshine of spring, another new semester has begun.

Last year, the College of Music of the SNU contributed hard work and effort to firmly establish its standing ground and consolidate its position in the midst of many changes and transitions in the SNU. And our College of Music is now getting ready to take a step further and advance to the next level to continue to maintain its status as the country's leading music institution.

Having such vision to move forward in our mind, the College of Music has put together its efforts, course of advancement, traces, and steps it took in the past years to be transformed into a better institution, and published this newsletter.

The newsletter contains from various performance activities of SNU Symphony Orchestra and many other groups of the College of Music, our dear students who are vigorously expanding their career in numerous international stages and competitions to recent activities of professors who are faithfully engaged in their duty as instructors as well as the best professionals in their fields.

I strongly believe that teachers and students, and upper and lower classmen cooperating in unison, and the heart willing and trying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with our talent is the very fountainhead, impetus, and driving force of the advancement of our College of Music.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thanks to all of you wh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College of Music of the SNU, and ask that you continuously take part in our race to achieve our vision.

And more than anything, I would like to thank our Prof. Young-Uck Kim, who had led the College of Music for the past two years. Inheriting the legacy and past accomplishments, I as the new Dean of the College of Music, will give my best to fulfill my responsibility.

Thank you.

March, 2013

Dean of the College of Music Young-Yul Kim

## Opera 《La bohème》

Opera 《La Bohème》 by Giacomo Puccini was selected as the 27<sup>th</sup> subscription opera of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pera was not only performed in the Grand Auditorium of SNU Cultural Center, but also in the Grand Concert hall of Gangdong Arts Center. In the play performed at Gangdong Arts Center, some of leading vocalists of Korea had participated as actors and played- Hyun-Jae Park as Rodolfo, Byung-Woo Kong as Marcello, Kang-Ji Choi as Schaunard, Yoon Jung Choi as Mimi, Yoon-Jo Cho as Musetta and so on. The 《La Bohème》 performed this year was indeed a success and received the greatest applause from the audience.

# 오페라 라 보엠 《La bohème》

2012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27회 정기오페라로 선정된 작품은 푸치니(Giacomo Puccini)의 오페라 《라 보엠》. 19세기 파리 뒷골목의 보헤미안 예술가들의 삶을 그린 이 작품은 가난하지만 항상 유쾌함을 잃지 않는 청년 남녀들의 이야기이다. ‘그대의 찬 손’, ‘내 이름은 미미’ 등의 걸출한 아리아들로 널리 알려진 《라 보엠》은 서울대 음악대학이 앞서 1975년, 1996년에 무대에 올린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무대이다. 2000년대 이후로 음악대학의 오페라 공연은 주로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렸었지만, 이번 공연은 문화관 대강당뿐만 아니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도 상연되었다. 《라 보엠》은 강동아트센터에서 2012년 10월 19(금)~20일(토) 양일간 상연되었다. 강동아트센터 공연에서는 로돌포 역에 박현재, 마르첼로 역에 공병우, 콜리네 역에 김민석, 쇼나르 역에 최강지, 미미 역에 최윤정, 무제타 역에 조윤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각각의 캐릭터를 연기했으며, 예술감독은 박세원, 연출은 이경재, 지휘는 김덕기, 김현수 오케스트라는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그 역할을 맡았다.

본 공연은 강동아트센터와 서울대학교 오페라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자연스러운 연기와 사실적 묘사가 뛰어난 무대가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각 막의 배경이 되는 초라한 아파트 다락방, 모뎬스 카페 앞의 거리, 파리로 들어가는 관문 총 3개의 무대는 매우 디테일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악가들이 연기하기에도 좋은 무대로, 관객들과 연기자 모두에게 좋은 무대였음이 분명했다. 또한 주요 캐릭터들의 분장과 의상 또한 무척 사실적이고 캐릭터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졌으며, 성악가들의 풍성한 연륜에서 비롯된 자유로운 연기는 관객들을 극에 더욱 몰입하게 하였다. 오페라는 무대, 음악, 연기 등 수많은 요소가 잘 맞물려 떨어져야 하기에 좋은 무대를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이번 강동아트센터에서의 《라 보엠》은 성공적으로 무대를 만들어냈으며 관객에게 큰 박수갈채를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내로라하는 성악가들에게서 풍기는 아우라가 강동아트센터에서의 《라 보엠》의 매력이었다고 한다면, 문화관 대강당에서의 《라 보엠》은 젊은 학생들의 풋풋하고 패기 넘치는 에너지가 그 매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2012년 11월 8일(목)~10일(토) 총 3일간 열렸으며 목, 금요일에는 하루에 한 차례씩, 토요일에는 오후 3시, 7시 반 두 차례에 걸쳐 상연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각 상연 날짜와 시간에 따라 모두 출연진이 달랐으며 미미, 로돌포, 무제타, 마르첼로, 쇼나르, 콜리네, 베누아, 파피놀 등 주요 캐릭터들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학사, 석사 학생들이 각각 그 역할을 맡았다. 강동아트센터와 같이 예술감독은 박세원 성악과 교수가, 연출은 이경재 연출자가 맡았으며 시월의 공연과 마찬가지로 문화관 공연에서도 뛰어난 무대 연출력이 돋보였다.

주요 캐릭터들과 합창단 등 무대 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부생들부터 아직 프로로 데뷔하지 않은 석사 과정생들까지 아직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다. 《라 보엠》의 캐릭터들이 무대 위에 서는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대여서 그런지 이번 무대에서는 젊은 학생들의 연기가 생생하게 와닿았다. 또한 연주 날짜가 한 학기의 중턱이었기에 오페라를 준비하는 동안 학생들은 준비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시간이 촉박했을 법도 한데 그들은 ‘바쁜 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준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비록 가난하지만 저는 사랑의 시와 노래를 임금처럼 누리며 살아갑니다.  
희망과 꿈으로 그려 낸 동중 누각 속에서 마음만은 백만장자입니다.”  
-아리아 ‘그대의 찬 손’ 중-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기오페라 공연을 수많은 관객들이 찾았다. 음악 애호가나 전공자,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과 그 지인들뿐만 아니라 서울대의 다른 전공 학생들과 어린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무대를 찾았다. 《라 보엠》이 널리 알려진 오페라이기는 하나 무료로 공연되는 문화관 공연에는 오페라를 처음 접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방문할 터. 이들에게 각 막의 스토리보드와 간략한 줄거리가 적혀있는 프로그램과 무대에서 진행되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매번 자막으로 띄워주는 무대 양 옆의 전광판은 극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뿐만 아니라 관객을 위한 섬세한 배려까지 잊지 않았던 본 공연은 관객에게 뜨거운 호응으로 보답받았으며, 공연이 끝난 뒤 로비에서도 공연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토요일 마지막 공연을 관람했던 천주홍(작곡이론·08) 학생은 “로돌포와 미미의 극적인 사랑과 서로를 향한 애뜻한 감정이 잘 느껴지는 훌륭한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페라는 방대한 출연진, 오랜 연습 기간, 막대한 제작 비용 등 선뜻 무대에 올리기 쉽지 않지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2년 간격으로 꾸준히 오페라를 공연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오페라를 준비하고 공연한다고 해서 가시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 가득한 태도로 언제나 뛰어난 무대를 만들어어나가는 음악대학 학생들. 준비하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로돌포의 노래처럼 모두가 “사랑의 시와 노래를 임금처럼 누리는, 마음만은 백만장자”이지 않을까.

### > 출연진

예술총감독 : 박세원 | 연출 : 이경재 | 지휘 : 김덕기, 김현수

강동아트센터    미미 : 최윤정    로돌포 : 박현재    무제타 : 조윤조    마르첼로 : 공병우    콜리네 : 김민석    쇼나르 : 최강지  
문화관 11월 8일    미미 : 이동민    로돌포 : 이명현    무제타 : 정아영    마르첼로 : 명성민    콜리네 : 박종주    쇼나르 : 채희승  
문화관 11월 9일    미미 : 손나래    로돌포 : 김승직    무제타 : 김지은    마르첼로 : 황선엽    콜리네 : 손태진    쇼나르 : 최종안  
문화관 11월 10일(3시)    미미 : 권상미    로돌포 : 김태원    무제타 : 박주현    마르첼로 : 김대후    콜리네 : 박종주    쇼나르 : 이바울  
문화관 11월 10일(7시 30분)    미미 : 채주원    로돌포 : 김정훈    무제타 : 이정민    마르첼로 : 김용현    콜리네 : 최종원    쇼나르 : 김태중

## 변함없는 음악가의 길 - 정년퇴임교수 인터뷰 Interview of Retiring Professor



김영욱 교수(전임 음악대학장)

**Prof. Young Uck Kim, former dean of the College of Music**

Prof. Young Uck Kim, who is a world-famous violinist, graduated from Curtis Institute of Music and had gained reputation through performing with various prominent orchestras and conductors all over the world, has come to retire from his place as both the dean of the College of Music and professor of the SNU in February 2013. He has been diligently serving as the dean as well as a professor for past 10 years, and in the interview, he said that he will continue to pursue his passion for music through music education after the retirement.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지난 2년간 학장으로서 우리 음악대학을 이끌어왔고 이제 정년퇴직을 맞은 그를 찾아 그간의 회를 들었다.

“다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음악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이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다. 분명 그에게는 학장이나 교수와 같은 목직인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음악에 모든 걸 바친 ‘음악가’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렸다. 그렇기에 그가 학장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가 더더욱 궁금했다. “지난 2011년 봄은 우리 대학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연전 총장님으로부터 학장직을 맡아달라는 말씀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잤습니다. 저는 제 능력 밖이라 생각해 고사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총장님을 참 많이 힘들게 했지요. 교육자로서의 의무라는 총장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움직여 학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퇴임 소감을 물었다. “생각지도 못한 학장직을 맡게 되면서 저의 부족함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학교를 위한 봉사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저는 학장이기에 앞서 음악가이고, 모든 문제에서 음악이 중심이니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태봉 전임 학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학생, 교직원, 교수님들 모두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니, 한 기관을 책임지고 이끌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총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는 임기 동안 학장으로서 가졌던 목표에 대해서는 교육 여건 개선을 꼽았다. “학교에 있어 가장 소중한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편한 분위기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악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음악을 좀 더 편안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죠.” 그는 음악가로서의 긴 여정을 봤을 때 4년이라는 대학생활은 짧지만, 입시라는 전쟁을 거치고 처음 제대로 음악을 배우는 상황이라는 점에선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기분을 배우고 꿈을 꿀 어린 음악가들이 음악이 아니라 대학 입학에 대한 꿈을 꾸는 게 안타까웠어요. 대학에서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커티스 음악학교에서 수학하고 오랜 해외 생활을 한 그에게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제도는 분명 낯선 것이었다.



2003년 영구 귀국하여 서울대 음대와 함께한 지난 10년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한 김영욱 전 학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집중을 한 순간도 흐트러트리지 않았다. 교수로서 학교와 함께한 시간들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을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이라고 꼽은 그는 그것이 학생과 자신 모두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는 소중한 시간임을 강조했다. “방학 중에도, 학장직을 수행하면서도 매일 가르쳤어요. 그게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이었으니까요. 하루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서운할 정도였어요.” 그가 레슨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로는 ‘집중’을 들었다. “학생들에게 저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음악에 헌신하며 내가 가르치는 것과 학생이 배우는 과정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한 학생을 가르치는데 3~4시간이 걸리기 일쑤이지만, 그 시간이 저도 의식하지 못할만큼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몸과 정신을 다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보람이죠.”

그는 음악가로서 학생들에 대한 조언과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이제 음악을 배워가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악기에만 매달려 있지 않는 것”이었다. “음악가의 의무는 다름아닌 음악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테크닉에 매달리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경험을 넓히고 작품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의 단점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 역시 음악가로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50여 년을 연주한 곡도 여전히 들을 때마다 그동안 놓친 것들이 귀에 들어오거든요. 여기에는 제 일생을 바쳐도 모자랄 것이 확실해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작품의 깊이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퇴임 후에도 음악가로서 자신의 길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나이를 먹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가르치겠죠. 지금 이 자리에선 떠날 수 있겠지만 음악가는 은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의 업,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같으니까 그 점에선 달라지는 게 없죠.” 그는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음악가를 길러내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음악에 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그런 열정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외 무대에서 비로소 모국에 정착한 지난 10년간 교수로서, 그리고 학장으로서 봉사해 온 김영욱 전 학장은 변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진정한 음악가의 모습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시작될 그의 음악가로서의 여정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 박 세 원 명예교수(전임 오페라연구소장)

### Prof. Se-Won Park

Prof. Se-Won Park, who had been engaged in teaching profession at the College of Music of the SNU for last 20 years, from 1992 to 2012, is retiring from his seat in February 2013. He had served as the chairman of Opera Research Institute for several years, and he said he will continually produce and direct operas as an art director even after the retirement. Now the students and Prof. Park will meet and cooperate together as a music director and members, rather than a professor and students.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꼬박 20년간 서울음대의 강단에 섰던 박세원 교수가 2013년 2월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다. 교수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될 자유로운 음악 인생을 기다리는 그는 여전히 첫 무대에 오르는 젊은 음악가처럼 열정이 가득해 보였다.

박세원 교수는 성악가로서 오랜 시간 많은 오페라에 출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페라 예술감독, 음악감독으로 활약한지도 오래되었다. 지난 2012년 가을에 열렸던 음악대학 제27회 정기오페라 《라 보엠 La bohème》 또한 박세원 교수의 진두지휘 아래 무대에 올랐다. 박세원 교수는 “너무 뿌듯한 무대였습니다. 학생들의 공연이었지만,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뛰어난 공연이었고, 담당 교수님들의 헌신적 노력이 결실을 보이는 훌륭한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뛰어난 인재들을 세계 무대에 진출시키기 위해 우리 음악대학이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학생들에게 보다 큰 효율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하는 시기이며, 교수님들의 노력 또한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성악가로서 수많은 오페라 공연을 해왔기에, 오페라의 예술감독을 맡는 일이 그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오페라는 성악가가 주도하지만, 오케스트라 또한 그 중요성이 성악과 거의 대등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드라마로 엮어내는 연출과 무대미술을 포함한 조명, 의상, 공연을 진행시키는 무대감독 등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예술장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감독이라 함은 이 모든 부분들을 최종 조율하고, 기계적인 안전까지도 점검해야 하는 중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성악가들이죠. 저는 성악가 출신 예술감독이기에 성악가들의 애환과 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또는 인간적인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저에게는 예술감독으로서 활동하는데 큰 장점이 되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부터 세부적인 면까지 모두 총괄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끝내고 나면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이 모든 앙상블을 장시간 함께 노력했던 전체의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예술감독으로 출연진과의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힘든 때에도 즐겁게 일에 임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박세원 교수는 오페라 제작은 예술감독의 안목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많은 노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서 새 작품들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세원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중 가장 보람되고 즐거웠던 시간으로 무대와 소품을 학생들과 직접 만들어 서울을 포함한 지방의 많은 도시를 돌며 투어공연을 한 시간들과 서울시 오페라 단장직을 맡고 있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오페라 “La Traviata”를 이태리 베르디극장에 역 수출하였을 때를 꼽았으며 이 무대에 섰던 많은 성악가들이 대부분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 출신인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즐거운 추억이라고 꼽았다. 이렇듯 박세원 교수에게는 학생들과 함께 제작하는 무대에 대한 뿌듯함과 기쁨 또한 있었지만 즐거운 해프닝도 많았다. “한번은 무대에 오른 학생이 오르자마자,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 머리가 새하얗게 됐는지 가사를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이태리어를 즉흥적으로 지어서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무대 뒤의 동료들도 열심히 가사를 불러주는 소리도 들리고, 그 학생은 설날 까까옷을 비롯한 유명 카페 이름까지 부르더라구요.(웃음) 이런 순간들은 정말 인간적이고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교수로서, 연출자로서, 그리고 학생들의 멘토이자 선배로서, 박세원 교수는 학생들에게 무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실수를 보완하고 언제나 이끌어주려고 노력한다. 박세원 교수는 음악을 공부하는 음악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대에 자신있게 임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를 꼽았다.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연습부족으로 연주자 자신이 즐기지 못하는 음악을 관객들이 듣는다면, 관객들이 그 음악을 듣고 감동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음악가들도 운동선수와 같이 기록을 갱신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성악가, 오페라제작자,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박세원 교수는 젊은 음악인들에게 “음악가로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예술적 부분을 믿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나가세요. 세계적 대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치, 기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며 일생을 살 수 있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 성공한 음악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다.”라고 말하였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예술감독으로서 오페라를 제작할 계획이라는 박세원 교수. 그가 후배 음악인들에게 제공할 새롭고 창의적인 무대를 기대해 본다.

## Prof. Hyung-Bae Kim

In last December, the editorial department visited Prof. Hyung-Bae Kim, a pianist, who is retiring from his teaching profession this year. He has been devotedly engaged in teaching in our school for more than 20 years, and he also has been serving as the president of IMAA (International Music Arts Association), which has been established having renowned figures of the musical field as its core members, for the expansion of the classical music in Korea, since April, 2011. Along with such dedication, he said he will make an effort to direct and lead the music instructor course after the retirement. "I think of it a blessing to be able to feel joy and delight when listening to music.", Prof. Kim said. Now stepping aside from the active teaching profession, he said he is planning on working to serve and volunteer for the bigger society and public from now on.



## 김형배 명예교수

학기가 끝나고 매서운 찬바람이 불던 12월, 올해 정년퇴임을 하시는 김형배 교수님을 만나 뵈었다. 편안한 차림새로 친근하게 맞아준 그는 20년 넘게 몸담고 있던 본교 음악대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 음대는 세계 최고예요. 순종적이고 협조적이며 자기 발전에 대한 집념이 있는 학생들과 수업에서 다루는 최상의 문헌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곳은 최고의 학교자 제겐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그를 거쳐간 수 많은 학생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미국 유학 당시 지도교수에게 받았던 차별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을 대하는 그의 신념을 이야기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제 학생들에게 중용을 지키려고 해요. 오하이오 대학(Ohio University)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처음 한국에 와서 놀란 게 한국은 교수랑 학생이랑 친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학생과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대부분이 여학생이라 요즘 말로 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만났나를 생각해보면 공과 사를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을 방목형 교수라고 말하는 그였지만 학생들에 대한 애정은 어느 누구 못지 않아 보였다.

20여 년 전의 서울대 음대와 지금 사이에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오래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던 피아노과 엠티(MT)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는 제주도로 엠티 가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말고도 다른 대학 학생들도 많았는데, 다른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춤추고 게임하고 시끌벅적하게 놀며 가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디 장례식장 가는 아이들처럼 조용히 가더라고요. 제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날로 서울로 올라왔죠 (웃음). 그런데 요즘은 우리 학생들도 신나게 잘 노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예전의 그 수줍음 많은 학생들이 그리기도 해요."

사실 김형배 교수는 2011년 4월부터 국제 음악예술 진흥회(IMAA)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IMAA는 우리나라의 클래식 확대를 위하여 음악계의 저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그는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다. "한국의 클래식 연주자들의 기량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나 일반인들의 클래식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고 그나마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도 열악한 상태죠. 또 수많은 음대생들이 졸업 후 진로로 고민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클래식 음악 저변인구 확대와 음대생 직업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이는 2013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음악교육 전문지도자 과정으로 시행될 거예요. 또 매년 콩쿠르도 개최하고 있는데 여러 학생들에게 입상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 다른 콩쿠르와 다른 점이지요."

그렇다면 퇴임 후 그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는 앞에서 말한 음악교육 전문지도자 과정을 이끄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예체능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술이나 체육과는 달리, 음악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음악 지도자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양성과정을 통해서 사회 각층의 필요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저는 대학에서는 원리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의 원리, 연주의 원리 등 말이죠. 여기서 배운 것은 단지 앞으로의 방향만을 잡아줄 뿐이에요. 그 밖의 것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해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그의 말은 종종 자기만의 음악세계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한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충고인 듯하다.

음악을 들을 때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진다는 김형배 교수. 후학 양성에서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다는 그의 다짐을 응원한다.



60여 년의 역사(1948~ )를 지닌 SNU Symphony Orchestra는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2,3,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서, 음악감독 임현정 교수의 지도 아래 대한민국 음악의 산실로 국내 대학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향상과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말러, 스트라우스, 베를리오즈, 스트라빈스키 등, 전문 관현악단들도 버거워할만한 작곡가들의 교향곡을 초연함으로써 젊은 음악가들의 열정과 기량을 선보여 왔으며, 2001년 독일 만하임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만하임음대와의 합동공연을 통해 독일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2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2개 지역에서의 서울음대, 만하임음대 합동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독일 음악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였고, 2005년 4월 독일과 미국 카네기홀에서의 합동연주는 한층 더 성숙한 실력을 보여주며 서울대음대의 세계화를 향한 한 걸음을 마련하였다. 오케스트라는 또한 2006년 서울대학교 60주년 기념 음악회로 말러의 천인 교향곡을 성황리에 연주한 바 있다. 그리고 2011년 가을 거장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와 함께한 오케스트라 워크숍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하고 있다.

## SNU Symphony Orchestra

### 정기연주회

#### Subscription Concert of SNU Symphony Orchestra

There was the SNU Symphony orchestra's subscription concert held on December 17<sup>th</sup>, 2012 in the Seoul Arts Center. The orchestra performed Berlioz's (Roman Carnival, Op. 9), Mozart's (Piano Concerto No. 21, K. 467), and Brahms's (Symphony No. 3, Op. 90). Kyung-Sun Park, the featured soloist of (Piano Concerto No. 21, K. 467), personally composed the cadenza himself in Jazz style and performed, and thus provided the audience with the novel experience and entertainment. Despite the easy and light atmosphere of the first half of the concert, the latter part was embellished by Brahms's (Symphony No. 3, Op. 90) in somewhat serious and calm atmosphere. This concert was an outstanding work of art borne from tremendous amount of effort and trainings of members of the orchestra, and their skill was satisfactorily demonstrated.



지난해 봄 정기연주회에서 학교 사상 처음으로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선보였던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의 문턱에서 더욱 다채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2012년 12월 17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가을 학기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은 마치 의도한 듯 '다원적'이었다. 베를리오즈의 서곡 《로마의 사육제 Roman Carnival Op. 9》로 시작하여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K. 467》을 거쳐 브람스 《교향곡 제3번 Op. 90》으로 이어진 이날 공연은 그야말로 고전과 낭만, 표제와 절대음악을 아우르는 음악의 향연이었다. 특히 이러한 선곡은 청중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주를 경험케 하는 임현정 지휘자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베를리오즈의 화려한 관현악법을 들려주며 힘차게 막을 올린 이날 전반부 공연의 주인공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K. 467》을 협연한 박경선(피아노 · 11) 학생이었다. 본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세계일보콩쿠르 1위, 전국수리음악콩쿠르 1위를 비롯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10월 열린 학생 오디션을 거쳐 본 공연의 협연자로 선정되었다. 그는 이날 공연에서 모차르트가 연주자를 위해 비워둔 카덴차를 직접 재즈풍으로 작곡, 연주하여 청중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연주가 끝난 후에는 끊임없는 박수갈채에 대한 회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동요 '펄펄 눈이 옵니다' (박재훈 작곡)를 재치 있게 편곡하여 들려주었다. 박경선 학생은 "공연

이 잘 마무리 되어 너무 뿌듯합니다.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처음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내악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공연 소감을 전했다.

공연의 후반부는 브람스의 《교향곡 제3번 Op. 90》이 장식했다. 이 작품은 브람스의 교향곡들 중 짧은 축에 속하는 길이에도 불구하고 웅대한 악상과 낭만적 정서, 고전적 형식미를 모두 갖추어 브람스의 '영웅' 교향곡으로 꼽힌다. 전반부와는 전혀 다른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그간 같고 닳은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고요함 속에서 곡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숨을 죽인 청중들을 통해 이날 연주의 질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공연을 마친 후 박세록(비올라 · 10) 학생은 "너무 흥가분하다."며, "연습 때 임현정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약한 리듬과 템포를 많이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브람스의 작품에서 흐른 수석을 맡았던 고예랑(호른 · 09) 학생은 "좋은 기회였고, 졸업 연주와 겹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라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브루크너의 대작에 이어 쉽지 않은 레퍼토리로 이번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늘 새로운 시도와 변화하는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젊은 오케스트라'를 대표하고 있는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본다.





## Spirit of SNU Strings

The concert of Spirit of SNU Strings, which of this year was its second concert, was held on November 18<sup>th</sup> in IBK Chamber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In the concert, some of the greatest active musicians, like Prof. Ju-Young Baek, Prof. Chung-Sim Baik, and Prof. Ensik Choi, joined themselves with current students of String major, who were carefully auditioned and selected, and all of them as one body put forth a successful performance. The program of the concert included L. v. Beethoven's *(String Quartet No. 6, Op. 18)*, Brahms' *(Piano Quintet, Op. 34)* and Dvorak's *(String Sextet, Op. 48)*.

# SNU Symphony Orchestra

## 교내연주회

### Campus Concert of SNU Symphony Orchestra

The concert of SNU Symphony Orchestra was held on November 26<sup>th</sup> in the Concert Hall, under the conducting of current students of Conducting major. Three students of Conducting Major, Kyu-sung Lee, Young-Lang Kim, and Min-Sang Cho, conducted the orchestra, and the repertoire of the concert consists of 3 pieces, which were: C. Debussy's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F. Mendelssohn's *(Symphony No. 5)* and L. v. Beethoven's *(Symphony No. 5)*.

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지휘과 학생들의 지휘 아래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열렸다. 이날 지휘를 맡은 학생들은 이규성(지휘·09), 김영랑(지휘·석사), 조민상(지휘·08)으로 총 3명이었다. 이날 연주된 곡목은 드뷔시(C. Debussy)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멘델스존(F. Mendelssohn)의 *《교향곡 제5번》*, 베토벤(L. v. Beethoven)의 *《교향곡 제5번》* 총 3곡이었다. 첫 곡이었던 드뷔시의 작품은 학생 지휘자와 학생 오케스트라의 실력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려하고 섬세한 음악을 만들어갔으며 청중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케스트라의 분위기에 한껏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교적 어린 학생들이 주 관객이었지만 연주회장의 분위기는 프로 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 못지 않았으며, 이 분위기는 김영랑 학생의 지휘로 연주된 멘델스존의 작품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 5번》*은 국내에서 그리 흔히 연주되지 않는 작품으로 "종교개혁"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다. 흔한 레파토리가 아니라 관객들이나 연주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는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냈고, 관객 또한 열렬한 박수로 연주에 화답했다. 마지막 곡은 조민상 학생의 지휘로 연주된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어 연주자와 지휘자, 그리고 감상자에게 친숙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휘자와 연주자는 이 명곡만큼 뛰어난 명연주를 보여줬고 멋지게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지휘과 학생들의 졸업연주이자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는 객석과 무대 모두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펼쳐진 기분좋은 연주회였고, 앞으로 학생이 아닌 정식 지휘자로서 무대에 설 한국의 젊은 지휘자들의 탄생을 알리는 뜻깊은 연주회이기도 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Spirit of SNU Strings' 연주회가 지난 11월 18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렸다. 본 연주회는 1993년 현악과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마련한 발전기금을 바탕으로 마스터 클래스, 국제콩쿠르 참가지원 및 장학생 선발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 연주회에는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로 활동중인 백주영 교수(기악과·바이올린), 백청심 교수(기악과·첼로), 최은식 교수(기악과·비올라)와 더불어 열띤 노력을 통해 선발된 본교 현악 전공 학생들이 함께하였다.

이날 연주회의 문은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제6번 Op. 18》*이 열렸다. 연주에는 김영리(바이올린·11), 조인영(바이올린·11), 김다은(비올라·11), 최정우(첼로·11)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 작품은 베토벤의 초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과 함께 고전주의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다. 학생들은 나무랄 데 없는 깔끔한 연주로 베토벤 특유의 양식이 담긴 고전적인 소리를 들려주었다.

다음 순서로는 하유나(바이올린·10), 김민지(바이올린·11), 장은경(비올라·12), 이예린(첼로·10), 김선화(피아노·11) 학생이 참여한 브람스 *《피아노 5중주 Op. 34》*가 연주되었다. 이는 앞선 베토벤의 작품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상상력 넘치는 전개와 다이내믹한 음악 구조를 통해 브람스의 서정성이 드러나는 곡이다. 실제 연주에서는 피아노의 도입으로 더 극적인 표현과 함께 연주에 몰입한 학생들의 기량을 만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주된 작품은 드보르작의 *《현악 6중주 Op. 48》*이었다. 베토벤과 브람스의 전통의 연장선에 위치한 그의 음악은 고전적 형식 안에 다양한 리듬 양식과 민족적 색채를 더하여 발전시킨 작품으로 여겨진다. 특히 여기서는 백주영, 백청심, 최은식 교수와 김혜지(바이올린·09), 한예진(비올라·09), 박성진(첼로·12) 학생이 짝을 이뤄 호흡을 맞추어 유감없이 멋진 앙상블을 들려주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 Spirit of SNU Strings의 무대는 재학 중인 현악 전공 학생들과 서울대 현악과 교수진이 함께 하는 연주를 통하여 실내악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진정한 의미의 앙상블을 통해 실내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행사였다.



베토벤 *《현악 4중주 제6번 Op. 18》*



브람스 *《피아노 5중주 Op. 34》*



드보르작 *《현악 6중주 Op. 48》*



## SNU String Ensemble

### SNU String Ensemble

In their regular subscription concert held on last November 27<sup>th</sup> in the Concert Hall, SNU String Ensemble, under the conducting of Jae-Yoon Kim from Seoul Chamber Orchestra, performed a repertoire that was not easily acquainted in daily life- M. Giuliani's *Concerto for Guitar and Strings, Op. 30*, G. Bottesini's *Concerto No. 2 for Double Bass*, and Bartok's *Divertimento for Strings BB. 118*. In this concert, Mi-Sol Lee, an alumna of the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and Han-Byul Jang, a current student of the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played as soloists with orchestra.

지난 11월 27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회에서는 서울 바로크 합주단 김재윤의 지휘로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레퍼토리인 줄리아니(M. Giuliani)의 《기타와 현을 위한 협주곡 Op. 30》과 보테시니(G. Bottesini)의 《더블 베이스를 위한 협주곡 제2번》, 마지막으로 바르톡의 《현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BB. 118》가 연주되었다. 이날 공연에는 본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대전국제클래식기타 페스티벌 콩쿠르 1위, 가르가노(Gargnano) 국제 콩쿠르 3위 등을 수상한 이미솔(클래식기타·석사), 한국콘트라바스협회 콩쿠르 대학일반부 2위, 동아음악콩쿠르 2위 등을 차지하고 현재 본교 기악과 재학중인 장한별(더블베이스·09)이 협연하였다.

## SNU Wind Ensemble

The SNU Wind Ensemble concert held on November 23<sup>rd</sup> 2012 in the Arts Center was held under the directing of Prof. Young-Yul Kim with solo accompaniment of Toby Oft, who is principal trombone of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In this concert, the orchestra performed numerous master pieces, like the premiere performance of J. Schwanter and J. Harbison, Tchaikovsky's *Fantasy Overture Romeo and Juliet*, Launy Grøndahl's *Trombone Concerto*, and A. Copland's *El Salon Mexico*.

1961년 창단 이후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합주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2년 11월 23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열린 이날의 연주회는 김영률 교수의 지휘 아래 보스턴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인 토비 오프트(Toby Oft)와의 협연으로 이루어졌다. 항상 새로운 레퍼토리의 개발에 힘쓰는 서울대학교 관악합주단은 이번에도 슈반터(J. Schwanter)와 하비슨(J. Harbison)의 작품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 Fantasy Overture Romeo and Juliet》과 편안한 선율적 흐름이 흐르는 그윈달(Launy Grøndahl)의 《트롬본 협주곡》, 그리고 멕시코의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코플랜드(A. Copland)의《El Salon Mexico》가 연주되었다.



### SNU Percussion Ensemble

The subscription concert of SNU Percussion Ensemble was held on October 26<sup>th</sup> in the Concert Hall of the Art Hall. The ensemble performed a repertoire consists of numerous pieces of various composers; the repertoire included Rüdiger Pawassar's *Sculpture 3*, Thom Hansenpflug's *BICKSA*, Thomas Gauger's *Gainsborough*, George Clements and Rober Marino's duet piece for multi-percussions *8 on 3, 9 on 2*, Clay Condon's *Quad Helix*, John Cage's *Third Construction*, and Lynn Glassock's *Layers*.



SNU Percussion Ensemble은 타악기를 전공하는 재학생들과 졸업생이 주축이 되어 2001년 결성된 이래, 국내 초연곡을 포함하여 클래식에서 창작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타악기를 위한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정기연주회의 첫 곡은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들리는 마림바의 선율이 매력적인 독일 출신 작곡가 파바사(Rüdiger Pawassar)의 《Sculpture 3》였다. 다음으로 연주된 한젠플루크(Thom Hansenpflug)의 《BICKSA》는 헝가리어로 작고 날카로운 칼이라는 의미로, 반복적인 강렬한 리듬이 특징적인 작품이다. 전반부의 마지막 곡으로 연주된 게이저(Thomas Gauger)의 《Gainsborough》는 대중적인 재즈풍의 마림바 선율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전반부 공연이 끝난 후 인터미션 시간에도 연주는 중단되지 않았는데, 타악 전공 학생들은 무대가 아닌 콘서트홀 로비에서 드럼을 이용한 '난타' 연주로 학생들 스스로가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곧바로 후반부 공연으로 이어졌다. 클레멘츠(George Clements)와 마리노(Robert Marino)의 멀티 퍼커션을 위한 듀엣 작품 《8 on 3, 9 on 2》에서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며 두 연주자가 마주보고 현란하게 드럼을 두드리는 연출이 인상적이었다. 그 외에 컨던(Clay Condon)의 《Quad Helix》가 국내 초연되었고, 유명한 케이지(John Cage)의 작품도 연주되었다. 그의 《Third Construction》은 24개의 마디로 된 24개의 섹션이 순환하는 구조적인 작품으로 다채로운 악기 구성을 드러냈다. 이날 연주회 프로그램은 8명의 연주자가 4개의 건반악기와 4개의 리듬악기를 연주하는 중후한 느낌의 작품인 글래스록(Lynn Glassock)의 《Layers》로 마무리 되었다.

연주자들은 모든 예정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맨손을 이용한 연주와 팬타마임으로 끼와재능이 넘치는 앵콜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는 지도교수인 최경환(기악과·타악기) 학과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제자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런 SNU Percussion Ensemble의 공연은 레퍼토리 선정에서부터 공연에 임하는 그들의 진지한 자세, 그리고 넘치는 재치에서 젊음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꽃피는 다음 무대를 기대해본다.

## SNU Percussion Ensemble



## 국악과 정기연주회

### Subscription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n November 2<sup>nd</sup>, the fall-season subscription concert of the SNU Department of Korean Music was held in National Gugak Center. In the first part, the wind ensemble piece 《Sujecheon》 was performed under the leading of Prof. Kyung-sook Yang, and the program was followed by instrument solo of Han-sol Kim, and Geomungo sanjo called 《Hangapdeukryu》. The first part was wrapped up with 《Sinawi》, a kind of traditional orchestral ensemble which demonstrates the quintessence of the Korean improvisational music, under the supervision of Young-gil Kim. The second part started out with the premiere performance of 《Sorimaek》 composed by Hae-sik Lee, under the conducting of Prof. Jae-won Lim, and concerto 《Gasanhyang》 and 《Hohogoot for 4 Gayageum》 was also performed.

11월 2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가을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국악과의 가을 정기연주회는 국악과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뽐내었다. 1부에서는 양경숙 교수의 집박으로 관악 합주 《수제천》이 연주되었고, 이어서 김한솔의 기악독주,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가 연주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영길의 지도로 즉흥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민속악 합주 《시나위》가 연주되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임재원 교수의 지휘 아래 이해식 작곡의 《소리백》이 위촉·초연되었고, 협연곡 《가산향》과 《4대의 가야금을 위한 호호굿》을 이어서 연주하였다. 2012년도 국악과 가을정기연주회에서는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모두 아우르는 국악과 학생들의 훌륭한 기량을 엿볼 수 있었으며, 예약당의 800여 석이 가득 차는 국악과 정기연주회의 인기 또한 실감할 수 있었다.

글 | 국악과 학사과정 이수옥(해금 · 10), 김유나(아쟁 · 10)

## 국악과 제1회 대학원 정기연주회

지난 2012년 12월 18일, 서울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서울대학교 국악과 제1회 대학원 정기연주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연주회의 연주단은 국악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청소년국악관현악단 단장이자 서울대학교 국악과 강사인 김성진 지휘자가 음악감독 및 관현악 지휘를 담당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열린 최초의 국악과 대학원 정기공연인만큼, 이번 연주회에서는 본교의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하기도 한 고(故) 이성천 명예교수(1936~2003)를 기리는 의미에서 고인이 생전에 발표한 300여 작품들 중에서 선정된 주옥같은 6곡이 무대에 올려졌다. 연주된 악곡은 《중주곡 12번 '해바라기'》, 《독주곡 18번 '두 현을 위한 오현금'》, 《중주곡 23번 '먼 훗날의 전설'》의 실내악곡 3곡과 《놀이터》, 《정가 협주곡 '사슴'》,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의 관현악곡 3곡이다.

연주에 참가한 지휘자와 연주단원 모두 연주 단체나 소규모 악단, 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주자이자 교육자이기 때문에 연습시간 조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심야 연습과 주말 새벽 연습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치열한 연습 과정을 거쳤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선보인 공연이 바로 서울대학교 국악과 제 1회 대학원 정기연주회이다.

이번 서울대학교 국악과 제 1회 대학원 정기연주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국악과 대학원 정기연주회이자, 최초로 국악과를 설치함으로써 대학 국악교육의 시대를 열기도 한 본교의 음악대학에서 개최된 연주회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도 회를 거듭하며 역사적 전통성과 감동이 전달되는 정기연주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국악과 대금전공 석사과정 정재우

### Inaugural Concert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Music

There was the first subscription concert of the SNU graduate school of the Korean Music held on December 18<sup>th</sup>, 2012 in the Concert Hall. The orchestra of this very concert consists of the current students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Music, and Sung-Jin Kim, who is the current leader of Seoul Metropolitan Youth Traditional Music Orchestra and lecturer of the SNU Department of Korean Music, took charge of conducting as well as the music directing. The music performed at the concert include 3 chamber music pieces (Ensemble No. 12 'Sunflower' ) by the late Prof. Sung-Chun Lee, (Solo No. 18 'the pentachord for two strings' ), and (Ensemble No. 23 'the legend of the distant future' ), and 3 orchestral pieces (Playground), (Jeonga concerto 'Deer' ), and ( 'Prelude on Taryeong' ).



## SNU Tuesday Concerts

In this 2012 fall semester, SNU Tuesday Concerts were held every Tuesday at 4 o'clock from October 23<sup>rd</sup> to November 13<sup>th</sup>, including the concert performed in the Concert Hall on September 25<sup>th</sup>. The concerts had been held 5 times in total, and each series was embellished with dynamic and colorful stage performances of famous musicians, such as violinist Felix Olschofka, pianist Jin-Sun Kim, pianist Gabriel Chodos, carefully selected ensembles and audition-winner student group.



1 11월 6일 하모니아 챔버 플레이어스  
2 11월 13일 가브리엘 초도스(Gabriel Chodos)



10월 30일 SNU Vocal Ensemble

## 관악구민과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

1994년 이후 19년째 계속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는 서울대 교직원 및 학생,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으로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을 초대하여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12년 가을 화요음악회는 9월 25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의 연주를 포함하여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화요음악회에는 바이올리니스트 펠릭스 올쇼프카(Felix Olschofka), 피아니스트 김진선, 피아니스트 가브리엘 초도스(Gabriel Chodos) 뿐만 아니라 학생 오디션 우승팀과 몇몇 앙상블팀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학기 첫 무대는 9월 25일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독일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펠릭스 올쇼프카와 역시 국내외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진선이 만나 호흡을 맞췄다. 포레와 페르트,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로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었다. 특히 앞의 두 곡은 한국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곡으로 청중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주었다.

10월 23일은 음악대학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SNU 국악 실내악단과 트리오 에스칼리아(Trio S-Callia)의 무대였다. 작년 국악과 창작음악연주회에도 참여했던 SNU 국악실내악단은 《추초문》과 《구음시나위》를 연주하였다. 대한민국 작곡상을 받기도 했던 《추초문》은 서양음악의 기법을 접목시켜 국악의 색다른 매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세 학생으로 이루어진 트리오 에스칼리아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소나타 5번 '유령'》 전 악장을 연주하여 국악과 클래식 음악 모두를 만끽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무대는 10월 30일 윤현주 교수가 지휘하는 SNU 보컬 앙상블이 준비하였다. 브람스의 성악 앙상블로 꾸며진 무대에서는 《시편 13편(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왈츠에 붙인 사랑노래》, 《로맨틱 여성 합창곡》을 소프라노 조윤조, 메조소프라노 변정윤, 테너 박준석, 바리톤 정상천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었다. 연주자들 모두 본교 졸업생으로서 브람스의 주옥 같은 성악 곡들을 공연 내내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불러주었다.

11월 6일, 네 번째 화요음악회는 6명의 젊은 연주자들의 모임인 하모니아 챔버 플레이어스(Harmonia Chamber Players)의 연주로 채워졌다. 이들은 아직 6중주가 활성화 되지 않은 한국에서 6중주 음악의 새로운 발견과 음악의 깊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탄탄한 실력을 갖춘 각각의 연주자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6명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각자의 특색 있는 음악 색깔도 들려주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날은 '로맨틱한 음악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립스키 코르사코프와 브람스의 현악 6중주 곡을 연주하였다. 이번에는 특히 해설을 곁들임으로써 청중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학기 마지막 화요음악회는 11월 13일 가브리엘 초도스(Gabriel Chodos)의 피아노 독주회로 마무리되었다. 미국, 유럽, 일본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하고 마스터클래스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그는 이전에도 서울대에서 수업을 진행한 바가 있다. 이번 연주에서는 전반부에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소나타를, 후반부에는 슈베르트의 소나타를 그만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연주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 SNU Hospital Concerts

In this fall semester, SNU Hospital Concerts was held three times, one at the Boramae medical center on November 2<sup>nd</sup>, and twice at SNU Hospital on November 9<sup>th</sup> and December 21<sup>st</sup>. Being held on a couple of days before the Christmas, the last concert on December 21<sup>st</sup> had included some Christmas carols familiar to general public into its repertoire along with the classical music. The program consisted of Popper's *(Polonaise for 4 violoncellos, Op. 14)*, carols such as *(Jingle Bell)* played by percussion instruments, and famous arias and songs like Rigoletto's *(La donna e mobile)* and so on.



## 희망과 감동의 음악

### 서울음대 병원음악회

12월 21일, 혜화동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따뜻한 캐럴이 병원 가득 울려 퍼졌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병원음악회는 매일 답답한 병실에서 지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번 학기에는 보라매 병원(11월 2일)과 서울대병원(11월 9일, 12월 21일)에서 세 번의 음악회가 열렸다. 성탄절을 앞둔 이날은 크리스마스 콘서트이니 만큼 특별히 클래식뿐만 아니라 우리 귀에 익숙한 캐럴이 연주되었다.

전반부에는 베토벤 *(현악사중주 Op.18 No.6)*으로 시작하여 포퍼의 *(4대의 첼로를 위한 폴로네이즈 Op.14)*, 타악기로 연주된 *(징글벨)* 등의 캐럴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후반부에는 윤현주 교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여자의 마음)*을 비롯하여 유명 아리아와 가곡, 그리고 여러 캐럴을 불러주었다. 관객들은 곡에 맞춰 박수를 치기도 하고 앵콜을 요청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었다.

이번 병원음악회는 환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주를 한 학생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음악회에 참여했던 김수지(성악·10) 학생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청중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뜻 깊었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하고 싶다.”고 하였고, 임다빈(성악·11) 학생은 “제가 환자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려 왔는데 되려 더 큰 것을 얻어 가네요.”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인을 기억하며 - 故 전봉초 교수 (1919-2002)



故 전봉초 교수는 우리나라 1세대 첼리스트로서 광복 후 서울교향악단 수석주자 등을 거쳐 1952년부터 서울대 음대에서 후학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서울대 음대학장과 음악협회 이사장, 예총 회장 등의 직책을 맡으며 음악계 권익에도 힘써왔다. 특히 그는 당시 바로크 음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서울바로크합주단을 창단하여 바로크 음악을 소개하고, 실내악의 발전을 도모한 공로로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끊임없는 활동으로 국내 음악계에 이바지 하다 지난 2002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1943 도쿄음악대학교 첼로과 졸업 / 1943 만주 新京음악원 교향악부 입단·수석주자  
1948 첼로독주회 22회(~1995) / 1948 서울교향악단 수석첼리스트  
195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1984) / 1966 서울바로크합주단 대표(~1983)  
1975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1979) / 1982 예술원 회원(기악)  
198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985 음악협회 이사장  
1985 난파음악제추진위원회 위원장 / 1987 코리아심포니 이사장  
1988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1990)  
1991 세계음악애호가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 1992 안익태기념재단 이사장  
【저서】 『농현(弄絃) 50년 낙수(落穗)』(월간 문학출판, 1988)  
【상훈】 예술원상, 금관문화훈장, 국민훈장동백장, 오월문예상, 예술문화대상

이복련 여사님

故 전봉초 학장 사모님



이복련 여사님은 바로크 합주단을 창단한 우리나라 1세대 첼리스트로서 역사의 산실이셨던 故 전봉초 전 서울음대 학장님의 사모님이다. 이복련 여사님은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신 후, 아들 성환(대구 가톨릭대 음대 명예교수), 딸 미영(한국교원대 음악과 교수), 소영(세종대 음악과 겸임교수)씨를 비롯한 서울음대 출신 음악가 집안을 이끌며 서울음대와의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다.

지난해 서울음대에 발전기금을 쾌척하신 이복련 여사님은 발전기금 출연 계기를 묻는 물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늦어졌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간 적금을 좀 했었어요. 이걸 전봉초 선생을 위해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앞으로 첼로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도와야겠다 하고, 그래서 늦었지만 고인의 10주기는 넘기지 말자고요. 그저 작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죄송한 마음이에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나라 음악계가 걸어온 역사와 더불어 진정으로 모교와 음악인을 생각하는 이복련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여사님께 모교에 바라는 점을 여쭙보았다. “유족들의 바람이지만, 다만 저는 정말 오랫동안 교수로 계시던 분들, 그리고 음악에 이바지하신 분들을 조금이나마 기억해주었으면 해요.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는 지금이지만 돌아가신 분이라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 그런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기금은 이복련 여사님의 바람에 따라 4학년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정성들이 모여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서울대 음악대학을 기원해본다.

국악과 김선화  
명예교수 인터뷰

오랫동안 정악 가야금의 전통을 계승, 전수하고자 노력해온 김선화(김정자) 명예교수(서울대 국악과)가 2010년 ‘이창규 정악 가야금 장학금’에 이어 지난 해에도 서울대 음대에 ‘유영수 정악 가야금 장학금’을 위해 기탁했다.

1959년 창설된 서울대 국악과에 1960년 입학한 김선화 교수는 보다 전통적인 정악 가야금을 배우고자 이창규 선생(이왕직 아악부 출신)을 찾아갔고, 스승으로부터 30년 전 스타일의 정악 가야금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은사의 이름을 기리고자 ‘이창규 정악 가야금 장학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 유영수 선생은 김선화 교수가 서울대 3학년에 재학하던 당시 1년간 정악 가야금을 사사한 은사이다.

“당시 형편이 어려워 제 악기를 소장하지 못했었는데, 유영수 선생님께서 당시의 악기를 제게 주셨습니다. 나중에라도 악기 값을 드리는 것이 옳은데 생각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빛진 마음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33년간 서울대 음대의 교수로 봉직한 김선화 교수는 정악 가야금의 전통을 잇고자 1977년 정악 합주단인 ‘정농악회(正農樂會)’를 창단했다. ‘정농’이란 ‘바른 음악을 농사짓자’는 뜻이다.

김선화 교수는 “음악은 변하기 마련이고, 원류가 잘 이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날의 국악은 매우 이질적으로 변했다.”며, “근본 정신을 지키고, 선조에게 물려 받은 것을 대를 이어 후손에게 잘 물려주는 것 역시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의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대왕의 궁중 아악처럼 화려하고 창대한 음악을 만들어 내는 국악 작곡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국악 이론, 연주 분야는 많이 발전했지만 국악 작곡 분야는 선조의 대를 이어 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음악에 대한 철학 공부가 이뤄지지 않고 서양식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옛것이라고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을 담은 옳은 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주도 '사이프러스 리조트' 강석영 사장님



서울대 음대 4학년에 재학 중인 바순 전공 강윤지 양의 부친인 강석영 사장(제주사이프러스 리조트)은 “당시 관악전공 주임이셨던 김영률 교수님의 조언, 윤지의 이모 다섯 명이 서울대 음대 동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난해 제주도에 열린 첫

번째 음대 교수협의회 행사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된 것을 계기로 이번에 소정의 발전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계기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음악대학 교수협의회가 개최된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cypress.co.kr)는 강윤지 양의 외조부가 과거 50여 년 동안 당시 뒤떨어진 국내 낙농사업을 발전시켜보고자 외딴 돌산 기슭을 일궈 목장으로 운영하던 곳이었다. 이후 제주관광산업의 세계적 발전을 꿈꾸며 이 목장에 방풍목인 삼나무 즉, 사이프러스 나

무를 30년 간 매년 꾸준히 심었고, 그 결과 5년 전 이 삼나무 숲 사이에 자연과 더불어 만든 인공적이지 않은 아름다운 골프장과 콘도가 탄생한 것이다.

“음대생 여러분도 앞으로 50년 후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하루를 작지만 꾸준한 노력과 연습으로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반세기 후에는 윤지 할아버지처럼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서울대 음대 출신의 존경받는 할아버지, 할머니 음악가가 될 것입니다.”

평소 윤지 양의 바순 연습 소리를 매일 들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은 깊지 못하다고 겸손하게 밝힌 강석영 사장은 바로크 음악과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작품은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악으로 자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음악과 같은 예술이란 완성이 없지요. 꾸준한 노력과 계발, 열정과 재능이 만나 자기세계를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하게 생각하지 말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음대생들이 이 과정을 즐기면서 준비하길 바랍니다.”

## 성악과 동문(93학번) 배우 김혜은

지난 2012년 10월 26일,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악과 김혜은 동문이 음대에 2천만 원을 출연하였다. 김혜은 동문은 “성악과 후배들 중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음악대학 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그들 자신이 혼자자 아닌 사실을 깨닫고, 주위에 많은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음악대학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가정 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성악과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출연 목적을 밝혔다. '김혜은 장학기금'으로 불리우는 이 기금은 음대 성악과의 공연 및 각종 행사에 쓰여질 것이다.



## 음악대학 발전기금 출연(2012.9.1~2013.1.31)

출연자명	납입일자	납입금액	기금명
김지윤	2012-09-03	1,000,000	
이명희	2012-09-06	200,000	
김선혜(정자)	2012-09-22	20,000,000	유영수 가아금 장학금
이복련	2012-09-24	30,000,000	전봉초 첼로 장학금
김금엽	2012-10-10	1,000,000	
이연자	2012-10-20	5,000,000	피아노전공기금
김혜은	2012-10-26	20,000,000	김혜은 장학기금
Aviram Reichert	2012-10-30	1,500,000	피아노전공기금
포베이 서울대점-오페라공연 지원금	2012-11-01	3,000,000	
도스타코스 서울대점-오페라공연 지원금	2012-11-01	1,000,000	
음악대학-오페라공연 지원금(강동구청)	2012-11-05	56,868,000	
재단법인 아트실비아	2012-11-12	3,000,000	현악전공기금
농협은행(주) 서울대학교지점-오페라공연 지원금	2012-11-19	5,000,000	
윤혜리	2012-11-22	3,000,000	
재단법인 아트실비아	2012-11-30	5,000,000	음악대학 학술
임재원	2012-12-04	7,000,000	
한솔제지	2012-12-05	10,000,000	
(주)성지인터내셔널 강상모	2012-12-10	10,000,000	음악대학 전자음악 발전기금
이수진	2012-12-11	1,000,000	관악전공기금
양경숙	2012-12-21	2,500,000	
풍강산업(주)	2013-01-16	500,000	학술연구시설 등
김규동	2013-01-17	250,000	
이돈응	2013-01-17	500,000	
이신우	2013-01-17	250,000	
전상직	2013-01-17	250,000	
최경환	2013-01-17	500,000	관악전공기금
김귀현	2013-01-17	4,500,000	학술연구시설등
김영률	2013-01-17	2,000,000	학술연구시설등
백정심	2013-01-17	3,000,000	학술연구시설등
오희숙	2013-01-17	2,000,000	학술연구시설등
윤현주	2013-01-17	3,000,000	학술연구시설등
후원자00135	2013-01-25	5,000,000	학술연구시설등
김미영	2013-01-30	400,000	

### \* 발전기금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1006-601-280134
-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 [www.snu.or.kr](http://www.snu.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 음악대학 또는 특성학과를 지정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Music performance - Chorus

'Music performance - Chorus' led by Prof. Hyun-Joo Yun of the Department of Vocal Music is offered as a general education course and is one of the most popular general education courses offered by the College of Music for non-music major students. This course aims at having the final vocal performance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 class is run by practicing each piece of the performance program, and the program includes the pieces of various composers from different periods and countries, such as lieder of Schubert, airs from Mozart and Verdi's operas, and Korean lieder.



### Introduction to Modern Music

'Introduction to Modern Music' taught by Prof. Suk Won Yi of music theory major of the Department of Composition is one of the lectures offered by the College of Music. Since 2002, it has been serving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lectures of the College of Music by introducing modern music to the general public and non-music majors. Having to help the students to build up refinement in music as its main objective, the lecture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historical roots that gave rise to specific music genres, and helping students to understand and grasp the music of specific era within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the very time when the music was in trend. Unlike other music-related elective courses, this lecture is opened to the students of the College of Music also, so that it may assist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modern music.

## 합창으로 꽃핀 열정 교양 연주 · 합창 윤현주 교수

성악과의 윤현주 교수님이 이끄는 '교양 연주 · 합창' 수업은 수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 교양강좌로 열리는 합창 수업으로, 타대생을 위해 개설된 음대 수업 중 굉장히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이다. 일주일에 두 시간씩 약 열두 번 정도로 진행되는 이 강좌는 학기 말의 '교양합창 종강연주회'를 목표로 한다. 합창단원들은 총 60명 정도로, 윤현주 교수는 "정규 인원은 50명이지만 워낙 인기가 많아 열 명 정도는 추가로 더 받는다."고 웃으며 말했다. 수업은 공연 프로그램을 한 곡씩 연습해가는 것으로 진행되며 연주하는 곡들은 슈베르트의 가곡, 모차르트와 베르디 오페라의 아리아, 한국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 배워온 시간들, 그리고 개인적 능력이 모두 제 각각인 탓에 얼마 되지 않는 한 학기 안에 한 목소리를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수업은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지만 그 와중에도 윤현주 교수와 학생들은 유쾌함을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 연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윤현주 교수에게도 애로점은 있었다. 윤현주 교수는 "수강하게 되는 구성원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강 전에 수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합창의 기본 파트가 되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뿐만 아니라 성별의 비율도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많이 어렵죠."라고 말했다. 여기에 윤현주 교수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이끌어어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열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의실을 찾았을 때는 종강연주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던 때였다. 발성연습으로 시작된 연습은 연습을 지켜보는 이마저도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고 집중도 있게 흘러갔다. 연습을 지켜볼 때 종강연주회를 목표로 수업이 꾸러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연습하는 와중에 학생들이 듣게 되는 노래, 표현에 대한 말들, 그리고 음악에 대한 말들이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귀중한 열정의 씨앗이 됨을 느낄 수 있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음악의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무대에서 느껴지는 기분 좋은 설렘과 떨림을 전해주는 이 수업은 수강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음악적 경험이 될 것이다. 종강연주회를 마치고 장세미(서양사학과 · 08) 학생은 "수업을 통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오르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접하게 되어 너무나 즐거웠다."라고 수강 소감을 밝혔다. 마음 속에 음악에 대한 열정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합창수업을 통해 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

## 우리 시대의 교양 현대음악의 이해 이석원 교수

작곡과 이론전공 이석원 교수의 '현대음악의 이해'는 음대 개설 핵심교양 강좌로, 2002년 개설 이래 10해째 현대음악을 대중들에게 알리며 음악대학을 대표하는 강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 수업은 다른 음악관련 교양강좌와 달리 음악대학 학생들에게도 열려있어, 현대음악에 생소한 전공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수업은 발표를 포함한 강의와 한 시간 동안 작품을 감상하는 집중 감상 시간으로 구성되며, 학기 말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무대가 마련된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석원 교수는 교양의 함양을 목적으로 특정 음악을 생겨나게 한 역사적 뿌리와 20세기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토양 속에서 그 시대의 음악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의를 소개했다. "현대음악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소함과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알고 듣는다면, 이해의 폭과 깊이는 한층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만의 특별한 꿈을 키워나가야 할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젊은 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수업을 통해 음악회장을 처음 가보게 되고, 예술에 관련된 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만의 문화생활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들이 교양강좌를 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강의실로 사용하는 음악대학 시청각실이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보조의자를 동원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경청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학생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수업을 수강한 홍승기(사범대 외국어 교육 · 12) 학생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클래식을 즐겨 들었는데, 19세기까지의 음악에 한정되어 현대음악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수업에서는 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집중 감상이 특히 좋았습니다." 또 이다인(소비자 아동 · 11) 학생은 "역사 및 미술과 연계된 수업이 인상 깊었고, '작은 음악회'를 비롯하여 의외로(?) 좋은 음악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2년 가을 학기에는 '현대음악의 이해' 수업이 교수학습개발센터(CTL)에서 주관하는 '명품강좌시리즈'에 선정되어 한 학기에 걸쳐 수업 촬영이 이루어지는 영예를 안았다. 편집된 강좌는 CTL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개된다.



| 김승근 교수  
(국악과 국악작곡)

내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의 하나는 단연코 음악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국제무대 활동에 관한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국제 콩쿠르의 상위 입상자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의 참가자들, 해외 우수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들과 입시 준비생들, 그리고 최근 K-POP 붐과 사이의 성공까지, 그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다.

얼마 전, 세계 유수의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의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개최 기간에 국영방송국에서 한국인들의 음악적인 역량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것 역시 한국음악을 향한 외국인들의 관심에 기반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초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콩쿠르연맹(WFIMC)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전 세계 나라별 통계에서 한국이 2~3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 음악인들이 국제무대 진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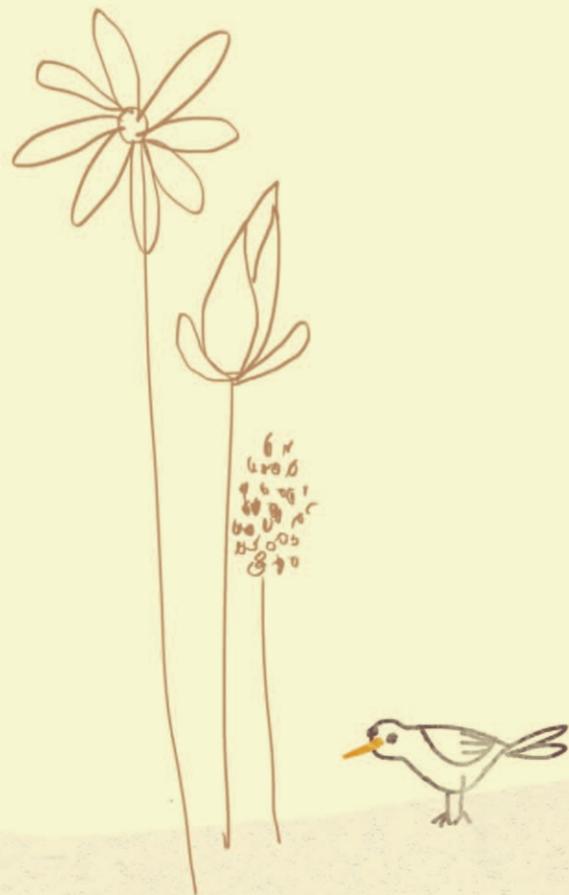
외국인들이 농담 섞인 말로, “앞으로 유럽의 극장들은 한국인들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없다면 운영이 힘들 것.”이라고 미래를 진단할 정도로 현재 우리 음악과 음악가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들을 바탕으로 나 역시 앞으로 한국음악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한국이 진정 세계 음악계에서 중요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 언덕방 한국인과 한국음악

현시대의 엘리트 교육이 현재까지의 성과를 이끌어내었다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병행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라질이 ‘영원한 우승후보’라고 불리며 세계 축구의 강국 자리를 지킬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트 영재 발굴 못지않게 그 바탕에 사회체육의 기반이 넓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현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악기와 독주 위주로 집중되는 현재의 전략을 다양한 실내악과 합주, 오케스트라 쪽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으로 편차를 줄여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독주자는 아주 예전에도 한두 명씩은 나왔음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한두 명의 특별한 연주자를 키우는 쪽 보다는 다양하게 차별화된 단체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 음악인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럽의 여러 도시를 가보고 느낀 점들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음악가들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그들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뿌리 깊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음악인 역시 그들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애정과 후원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자국 음악가들에 대한 존경이 깊어질수록 세계 음악계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 믿는다.



머리에는 지식을,  
가슴에는 사랑을,  
손발에는 근면을.

보고 또 봐도 좋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이다.

## 언덕방 내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



| 이호영 주무관  
(예술관 담당자, 기능 9급 기계원)

아침 출근길에 나의 보물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며,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라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나 또한 저녁에 집에 가면서  
기분이 좀 좋지 않으면, 내 기분을 정리하고 조금 늦게 들어간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집에서 만큼은 내색하기가 싫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오늘 어떻게 보냈고, 기분은 어땠는지를 묻는다.  
그만큼 자신의 기분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준다.  
엄마보다는 말을 덜 하지만, 아직도 아빠에게 안아달라는 딸들이 너무 좋다.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다. 그 전에 아내가 있어 감사하다.  
어떤 좋은 말도 가족을 대신할 순 없다.

자구다복(自求多福)

우리 집의 가훈이다.

복을 얻고 못 얻고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나도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비결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

2012년에도 지난 4년 동안의 학업을 예술관에서의 졸업 연주로 학사모를 쓰는 학생들을 본다.  
연주를 보고 듣고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진다.  
누군가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음악.  
그 음악을 하는 연주자가 행복해지는 소리가 오늘도 들려온다.

#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슬러 마스터 클래스

Menahem Pressler, who is a internationally famous pianist and considered as one of the greatest piano instructors, visited College of Music of the SNU from October 7<sup>th</sup> to 10<sup>th</sup>, 2012. Pressler visited the SNU upon the school's invitation, and he administered master classes in the Concert Hall for the four days. Pressler is a globally-renowned leading pianist and also a member of Beaux Arts Trio, so he administered master classes for chamber music as well as, along with the ones for the students of piano major.



보자르 트리오(Beaux Arts Trio)의 창단 멤버이자 피아노계의 전설로 존경받는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슬러(Menahem Pressler)가 지난 2012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음대에서 마스터클래스 시간을 가졌다. 서울음대 학생들은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자인 메나헴 프레슬러와 함께 피아노와 실내악 두 분야에 대해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마스터클래스는 10월 7일 콘서트홀에서 실내악으로 시작되었으며 공개레슨으로 진행되었다. 첫 날은 임성현(피아노 · 11)과 김혜지(바이올린 · 09)의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 1번 Op.12), 한희준(피아노 · 09), 현세은(첼로 · 09)의 브람스(첼로 소나타 제 2번 Op.99, 김선화(피아노 · 11), 하유나(바이올린 · 10), 김민지(바이올린 · 11), 장은경(비올라 · 12), 이에린(첼로 · 10)의 브람스(피아노 오중주 Op.34)가 각각 한 시간씩 지도받았다. 둘째 날은 피아노과의 장형준 교수 연구실에서 노한솔(피아노 · 10), 신선(바이올린 · 10), 이성희(첼로 · 10)의 브람스(피아노 3중주 Op.101), 고연경(피아노 · 11), 강정은(바이올린 · 12), 박다영(비올라 · 12), 강지영(첼로 · 12)의 모차르트 《피아노 4중주 제 2번》, 오연택(피아노 · 12), 김지원(비올라 · 11), 허예은(첼로 · 11)의 브람스 《클라리넷 트리오 Op.114(피아노, 첼로, 비올라로 편곡)》가 역시 한시간씩 집중적인 지도를 받았다. 셋째 날은 유빈(피아노 · 10)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28번 Op.101》, 박연민(피아노 · 10)이 쇼팽 《녹턴 Op.48 No.1》과 《마주르카 Op.24》, 양연정(피아노 · 11)이 브람스 《Klavierstueke Op.118》, 오연택(피아노 · 12)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Op.11》을, 김예은(피아노 · 10)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 20번 K.466 1악장》을 지도 받았으며, 마지막 날인 10일엔 김보영(피아노 · 11)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110》, 곽예은(피아노 · 09)이 쇼팽 《환상곡 Op.49》, 김진한(피아노 · 12)이 슈만 《피아노 소나타 Op.11》, 윤유정(피아노 · 11)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 20번 K.466》, 이소인(피아노 · 10)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K.488》을 지도 받았다.

전세계의 음악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메나헴 프레슬러(Menahem Pressler)는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팬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90세의 나이에도 그는 연주자로서 계속해서 독주회와 더불어 실내악 무대에서도 청중을 사로잡고 있으며, 또한 교육자로서도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다.보자르 트리오의 50여 개의 음반, 30개가 넘는 피아노 독주 음반을 녹음하기도 한 메나헴 프레슬러는 1955년부터 현재까지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마스터 클래스와 함께 많은 주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에스트로 메나헴 프레슬러의 이번 서울음대 방문은 서울음대의 젊은 학생들에게 귀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스튜디오2021

## SNU New Music Series Studio2021 · 2012 Autumn Season

Studio2021, which has been establishing itself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events of the SNU through contributing to the dissemination and advancement of contemporary music, in celebration of its 10<sup>th</sup> year, invited globally-renowned musicians, Cellist Wen-Sinn Yang, Soprano Hyunah Yu, Composer David Ludwig, Violinist Bella Hristova, Clarinetist Chen Halevi, and Conductor Ekkehard Klemm, and held workshops, master classes, lectures, and concerts in which the faculty and students of the SNU participates together. The concerts include the modern music concert which was prepared mainly by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Composition and piano major of the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and Schoenberg's (Pierrot Lunaire)

2003년 작곡과의 주관으로 시작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이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Studio2021은 펜데레츠키, 탄둔을 비롯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해 보는 Composer's Studio · 연주자들의 작업 공간을 들여다 보는 Performer's Studio · 워크샵 · 강연 · 마스터 클래스 등을 개최하고, 현대음악 악보와 음반을 출간하는 등 현대음악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며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현대음악 시리즈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 학기에는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태어나고자 작곡과 이신우 교수를 음악감독으로, 기악과 최희연 교수를 공동 프로그래머로 위촉하여 그간 작곡과에 보다 집중되어 있었던 프로그램을 음악대학 전체로 확대시켜 작곡가와 연주자가 함께 음악을 만들어나가고, 현대음악 속에서 아름다움과 감동을 발견하며, 자연스럽게 현대음악을 접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여섯 명의 세계적인 음악가들 - 첼리스트 벤신 양(Wen-Sinn Yang), 소프라노 유현아(Hyunah Yu), 작곡가 데이빗 루드윅(David Ludwig), 바이올리니스트 벨라 흐리스토프(Bella Hristova), 클라리네티스트 헨 할레비(Chen Halevi), 지휘자 에카르트 클렘(Ekkehard Klemm) - 을 초청하여 워크샵, 마스터 클래스, 강연, 그리고 본교 교수진 및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는 콘서트를 마련하였고, 기악과 피아노전공 학생들과 작곡과 작곡전공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준비한 현대음악 연주회 - SNU Young Pianists' Studio, SNU Young Composers' Studio - 와 성악과 · 기악과 학생들이 문헌을 공부하고 한 학기 동안 연습하여 전곡을 무대에 올린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콘서트도 개최되었다.



기악과 교수진이 함께 연주한 첼리스트 벤신 양(Wen-Sinn Yang) 콘서트

### 기악과 교수진이 함께 연주한 첼리스트 벤신 양(Wen-Sinn Yang) 스튜디오

- 콘서트 | 9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 워크샵 | 9월 21일(금)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9월 20일 목요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첼리스트 벤신 양(Wen-Sinn Yang, 원현음대 교수) 콘서트는 Studio2021의 이러한 새로운 기획 의도를 잘 보여주며 성황리에 2012년 가을 시즌의 막을 올렸다. 최희연 교수가 전체 프로그램의 피아노 연주를 담당한 1부에서는 드뷔시, 베베른의 작품과 더불어 현존하는 작곡가들 - 독일 작곡가 아리버트 라이만(Aribert Reimann), 스위스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베르너 바르치(Werner Bartschi), 그리고 작곡과 이신우 교수 - 의 다양한 스타일의 첼로를 위한 현대음악 작품들이 연주되었고, 2부에서는 벤신 양과 본교 기악과 교수진 - 최희연 교수, 백주영 교수, 윤혜리 교수 -, 클라리네티스트 임상우가 함께 연주하는 쇤베르크 《실내교향곡 Op.9》의 5중주 편곡 버전이 무대에 올려져 최고의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훌륭한 앙상블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다음날 열린 워크샵에서는 현대적인 첼로 연주법에 대한 강연과 더불어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벤신 양 교수의 폭넓은 연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조언은 작곡가와 연주자가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현대음악이 주는 감동, 소프라노 유현아(Hyunah Yu) · 바이올리니스트 벨라 흐리스토포바(Bella Hristova) 스튜디오**

- 콘서트 | 9월 24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 워크샵 | 9월 26일(수)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소프라노 유현아의 콘서트는 난해하게만 여겨져 왔던 '현대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준 음악회였다. 뿔랑(Francis Poulenc)과 볼프(Hugo Wolf)의 가곡으로부터 Studio2021 초청 작곡가 데이빗 루드윅(David Ludwig), 그리고 미국 작곡가 윌리엄 볼콤(William Bolcom)의 작품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유현아의 깊은 목소리와 표현력을 통해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게 청중에게 전달되었으며, 사이사이에 바이올리니스트 벨라 흐리스토포바(Bella Hristova)의 열정적인 연주가 돋보이는 프로그램 - 쇤베르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 Op.47》와 코릴리아노의 《레드 바이올린 카프리스》 - 이 배치되어 음악회에 흥미를 더했다. 이날 콘서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은 마지막 순서로 연주된 오스발도 골리호프(Oswaldo Golijov)의 《테네브레(Tenebrae)》였다. 유현아는 아름다움과 고통의 공존을 모티브로 하여 작곡된 이 작품을 현악 사중주, 그리고 클라리넷과 함께 절절하고도 은화한 음색으로 연주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9월 26일에는 작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올리니스트 벨라 흐리스토포바와 소프라노 유현아의 워크샵이 열렸다. 벨라 흐리스토포바는 학생들이 작곡한 바이올린 작품을 직접 연주하며 효과적인 연주법과 기보법 등에 대해 조언해 주었고, 유현아는 작곡에 있어서 인성(人聲)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강연하였다. 작곡과 학생들에게는 음악적 아이디어를 악보와 소리로 구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러나 문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노하우들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기악과 · 작곡과 · 성악과 학생들이 참여한 작곡가 데이빗 루드윅(David Ludwig), 클라리네티스트 헨 할레비(Chen Halevi) 스튜디오**

- 작곡가 데이빗 루드윅(David Ludwig) 스튜디오
- 강연(렉처콘서트) | 9월 24일(월)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 레슨 | 9월 25일(화) ~ 9월 26일(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20동 422호
- 콘서트 | 9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클라리네티스트 헨 할레비(Chen Halevi) 스튜디오**

- 워크샵 | 10월 30일(화)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 콘서트 | 11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작곡가 데이빗 루드윅(David Ludwig, 커티스음대 교수)과 클라리네티스트 헨 할레비(Chen Halevi, 트로싱엔음대 교수)의 스튜디오는 초청 음악가와 학생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이다. "미래와 전통: 현대적 작곡을 통한 과거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작곡가 데이빗 루드윅의 렉처 콘서트에서는 작곡가 자신의 음악 철학 및 창작 과정을 소개하는 강연과 함께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를 기초로 하여 작곡된 데이빗 루드윅의 《Lunaire Variations》 for solo piano가 연주되었다. 이 작품을 연주했던 노한솔(피아노 · 10) 학생은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는 곡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음색, 길이, 효과 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데이빗 루드윅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강연을 들으며 아! 이런 음악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곡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행복한 경험이었으며 앞으로 현대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고 소감을 전했다.

9월 25일과 26일에는 작곡과 학사 ·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작곡 레슨이 이어졌다. 시종일관 열성적인 태도로 레슨에 임한 데이빗 루드윅 교수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보다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미국 유학과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9월 27일에 열린 콘서트는 한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작곡과 전상직 교수의 작품 한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데이빗 루드윅 교수의 작품으로만 구성되었다. 콘서트에 참여하여 데이빗 루드윅의 다양한 작품들을 연주한 기악과 학생들은 작곡가로부터 직접 리허설 지도를 받고 초청 음악가들 - 소프라노 유현아, 바이올리니스트 벨라 흐리스토포바 - 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새로운 음악을 완성해가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클라리네티스트 헨 할레비의 워크샵은 성악과 · 기악과 학생들이 참여해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를 연주하고 지도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현대 실내악곡 연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헨 할레비 교수는 연주자 한 사람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지도하여, 연주하기 난해한 이 작품을 완성도 있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려 주었다.

이어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작곡과 정태봉 교수의 작품과 함께 현존하는 세계적인 작곡가들 - 스벤 잉고 코흐(Svan Ingo Koch), 크리슈토프 마라트카(Krzysztof Maratka), 브루노 만토바니(Bruno Mantovani), 매그너스 린드버그(Magnus Lindberg), 필립 에르상(Philip Hersant) - 의 비교적 난해하지 않고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클라리넷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졌다. 플루티스트 윤혜리 교수와 피아노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지훈, 그리고 헨 할레비 교수가 함께 연주한 만토바니(Bruno Mantovani)의 《L'ere de rien》은 강렬한 전개와 특징적인 리듬으로 청중들을 사로잡았고, 헨 할레비 교수와 기악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함께 연주한 에르상(Philip Hersant)의 《Im Fremden Land》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했다. 연주에 참여한 현세은(첼로 · 09) 학생은 "밝고 유쾌한 클라리네티스트 헨 할레비 교수님과 함께 한 이번 연주를 통하여 새로운 작곡가의 흥미로운 곡을 알게 되어 기쁘고, 현대음악이 막연하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곡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흥미롭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훌륭한 연주자들을 직접 만나서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소감을 전했다.

- 3 작곡가 데이빗 루드윅(David Ludwig) 렉처 콘서트
- 4 작곡가 데이빗 루드윅(David Ludwig) 워크샵
- 5 클라리네티스트 헨 할레비(Chen Halevi) 워크샵
- 6 클라리네티스트 헨 할레비(Chen Halevi)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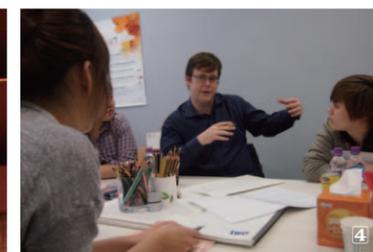
1 소프라노 유현아 콘서트



2 바이올리니스트 벨라 흐리스토포바(Bella Hristova) 워크샵



3



4



5



6

SNU Young Pianists' Studio, SNU Young Composers' Studio

- SNU Young Pianists' Studio

• 콘서트 | 10월 29일(월)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 SNU Young Composers' Studio

• 콘서트 | 10월 31일(수)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지난 학기 Studio2021에는 초청 음악가들의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주제로 하는 작업 공간 또한 마련되었다. SNU Young Pianists' Studio는 기악과 피아노전공이 주관한 첫 프로그램으로, 10월 29일에 열린 현대 피아노음악 콘서트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곡과 재학생 - 박강준(작곡·06), 유리나(작곡·석사) - 의 작품 두 편과 한국작곡가 김현민의 작품, 그리고 존 애덤스(John Adams), 코릴리아노(John Corigliano), 사리노(Salvatore Sciarrino), 칼 바인(Carl Vine), 베리오(Luciano Berio), 탄 둔(Tan Dun)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이 작곡과 이용석(08) 학생의 재치 있는 해설과 함께 아홉 명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완성도 높은 연주로 무대에 올려져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작곡과 작곡전공의 주관으로 개최된 SNU Young Composer's Studio 콘서트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곡과 학생들 - 이현진(작곡·09), 유혜림(작곡·09), 신나리(작곡·석사), 유리나(작곡·석사), 김새암(작곡·석사), 신은지(작곡·석사) - 의 작품이 성악과·기악과 학생들의 연주로 무대에 올려져 젊은 작곡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패기를 보여주었다. 이 콘서트를 통해 작품 《Glimmer》 for 7 Players를 발표한 신은지 학생은 “연주수업 외에는 교내에서 작품 발표를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작곡과 학생들에게 Studio2021의 Young Composers' Studio는 정말 좋은 기회의 장이다. 이번에 이 시리즈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나가면서 얻은 경험은 다음 작품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콘서트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작품 탄생 100주년 기념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콘서트

• 강연 | 9월 27일(목)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동 102호 (연사: 오희숙 교수)  
• 콘서트 | 12월 10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이번 시즌 Studio2021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올해로 작품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콘서트였다. 연주에 앞서 9월 27일에는 오희숙 교수의 강연이 개최되었고, 한 학기 동안 리허설 지도 및 연습 과정을 거친 뒤 12월 10일 지휘자 에카르트 클렘(Ekkehard Klemm, 드레스덴음대 교수)과 연주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SNU Singers & Players - 박정아(성악·박사), 성이현(성악·박사), 김현정(성악·석사)을 중심으로 하여 세 팀으로 구성된 성악과·기악과 학생들 - 의 연주 무대에 올려졌다.

글 | 작곡과 작곡전공 석사과정 유영지



7



8



9

7 SNU Young Composer's Studio  
8 오희숙 교수의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강연  
9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콘서트



International Percussion Ensemble Week

The 10<sup>th</sup> International Percussion Ensemble Week was held in SNU for 5 days from January 15<sup>th</sup> to 19<sup>th</sup> 2013. In this festival, Prof. Kyung-Hwan Choi and SNU Percussion Ensemble participated as the SNU's representatives and performed composer Tai-Bong Chung's 《Jinhon》, Hae-Sung Lee's 《Healing Moment VI》, Clay Condon's 《Quad Helix》 and Nebojsa Živković's 《Uno》, and they also held a lecture session on the topic of Korean percussion music.

국제 타악 앙상블 주간 (IPEW) 참가

지난 2013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에 걸쳐 진행된 제10회 국제 타악 앙상블 주간(International Percussion Ensemble Week)에 본교 최경환 교수와 SNU Percussion Ensemble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냈다. 크로아티아 벨로바르(Bjelovar)에서 매년 겨울 개최되는 IPEW는 세계 유명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연주와 강연, 마스터클래스 시간을 갖는 국제적인 타악 축제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본교 정태봉 교수의 《진혼》과 작곡가 이해성의 《Healing Moment VI》, 컨던(Clay Condon)의 《Quad Helix》, 지프코비치의 《Uno》를 연주하였고, 최경환 교수가 '한국의 타악 음악'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우리 대학은 작년 하반기 중 시흥시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음악멘토링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경기도 시흥시 어린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개인지도 선생님'이 되는 셈이다. 이 사업은 시흥시와 서울대가 시흥시 군자지구에 20만평 규모의 국제캠퍼스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음대 재학생들이 시흥시 어린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이다. 또한 이 사업은 음악 연주를 통하여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연주를 통해서 서로 간의 협동심 및 각자의 꿈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도교수, 음대 재학생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멘토링 그룹은 이들은 주말마다 시흥시를 찾아 어린이 단원들을 지도하게 된다. 악기와 연습실은 시흥시가 제공하며, 시에서는 학생들의 재능 기부에 화답하고자 장학금을 조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월 4일로 마감한 본 사업의 수요조사에서는 당초 계획한 인원의 2배의 인원이 신청을 하여 학년별로 반편성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업무협약(MOU) 체결은 3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조만간 지역 초·중·고교생 등으로 오케스트라를 편성할 계획"이라며 "서울대와의 협력으로 사설 학원 등 음악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음대에서는 지난 2011년도부터 재능기부봉사활동의 하나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병원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한 학기에 총 3~4회에 걸쳐 연건 서울대병원 2회, 분당 서울대병원 그리고 보라매 서울대병원의 환자들에게 오페라, 판소리, 현악, 관악 실내악 등 매회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감동과 즐거움으로 다가가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통해 재능의 축복을 나눔의 기쁨으로 함께 하는 음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

## 음악대학, 시흥시와 '음악멘토링 사업'

## 새롭게 신설된 음악교육 전문지도자 과정

서울대음대 피아노전공의 김형배 명예교수를 주축으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음악교육 전문지도자과정'이 신설되었다. 올 3월부터 30주 과정으로 운영되는 이 과정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본 과정에서는 '교육철학, 교육심리, 경영, 의사소통, 유아발달교육' 등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수업과 '국악부, 성악부, 피아노부, 관현악부'로 나뉘는 전공수업을 고루 받게 된다. 이 과정을 기획한 김형배 교수는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예체능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분야의 지도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음악 특성상 음악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매우 전문적인 일이라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사회 각층의 필요에 기여할 수 있는 음악 지도자를 양성하려 한다."고 말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과정은 음악 지도를 받게 될 사회 각 층뿐만 아니라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음대생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수많은 음대생들이 졸업 후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음악지도자 과정은 클래식 음악 저변인구 확대와 음대생의 졸업 후 직업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 과정은 김형배 교수와 국제음악예술연구소장이자 교과부 위촉 학교오케스트라 컨설팅 위원인 김미례, 서울종합예술대학교 음악예술학부 조흥기 교수, 예술의 전당 본부장 정동혁, 예원예술대 음악과 학과장 김규희,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김주영,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방은영, 서울종합예술학교 권순훤, 이어트레이닝 대표 이수정,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김현수,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심삼욱 등이 함께 강단에 서게 될 예정이다.

중요한 인성교육방법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음악교육, 서울대 평생교육원의 음악지도자 과정이 그 대열에 합류하여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음악수요자들에게 즐겁게 음악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 SNU 윈드 앙상블 재능기부 연주회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한창인 지난 2월 2일, 평창에서 개최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과 더불어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린 'SNU Wind Ensemble(이하 SNU 윈드 앙상블: 서울음대 관악합주) 재능기부 연주회'가 그것이다. 서울음대 기악과 김영률 교수가 이끄는 SNU 윈드 앙상블은 《Arrival of the Queen of Sheba》, 《On the Moll》, 《Westside Story Collection》 등 다채롭고 친숙한 곡들을 선사하였다. 특별히 이날 공연에는 가수 이상우 씨의 아들 이승훈 씨와 함께 《Over the Rainbow》,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두 곡을 트럼펫으로 협연하였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승훈 씨는 많은 관객 앞에서 긴장한 탓인지 첫 곡의 시작을 놓치고 말았지만, 지휘자의 격려로 무사히 연주를 시작할 수 있었다. 관객들은 그 순간 무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승훈 씨와 SNU 윈드 앙상블의 이러한 에피소드는 지난 2월 13일 오전 방영된 SBS 프로그램 '좋은 아침'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국내 관객과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단 등으로 가득 찬 콘서트홀은 매 곡이 끝날 때마다 열렬한 박수로 가득 찼다. SNU 윈드 앙상블은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에 화답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준비한 앵콜곡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사이의 '감남스타일'을 SNU 윈드 앙상블 버전으로 편곡하여 연주하였다. 이에 관객들은 흥겹게 말춤을 추며 마지막 무대를 즐겼고, 이날의 연주는 끊이지 않는 기립박수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스페셜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축제의 장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음악을 함께 나누는 데에 앞장섬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을, 국내외 관객들에게는 좋은 연주를 선사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글 | 기악과 호른전공 석사과정 최강산



## 음악학 교류의 발판

### 제2회 서울대-동경대 차세대 음악학자 교환 세미나 후기

2012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제2회 한일 차세대 음악학자 교환 세미나(Korean-Japanese Exchange Seminar in Musicology)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본 프로젝트 세미나는 서울대 오희숙 교수님과 동경대 헤르만 고체프스키(Hermann Gottschewsky) 교수님의 아이디어로 2011년에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두 번째 세미나가 열린 것이다.

세미나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서로의 발표주제에 대한 메일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누었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1회 세미나의 기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들은 세미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다. 나는 동경대에서 열린 첫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처음 이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에는 아시아권에서 음악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 참여할 때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하여 어떻게 사유하고 깊이를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었다. 학생들 중 일부가 자신이 그간 연구 해온 주제를 정리해서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제1회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연구 주제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석사 논문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세미나 첫째 날은 12명의 학생 참가자들 각자가 1인당 30분 동안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미리 발표 내용에 대한 페이퍼를 주고받아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 날 세미나는 발표 이후에 각자 준비해 온 질문들을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심도 있는 토론이 주가 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장시간 진행된 토론이 있는 동안 초반의 어색함은 이내 사라졌고, 서로의 의견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피력하는 서로를 발견하였다. 덕분에 상당히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 Summary of The 2<sup>nd</sup> Seoul National University -Tokyo University Exchange Seminar in Musicology

The 2<sup>nd</sup> Seoul National University -Tokyo University Exchange Seminar in Musicology was hel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3 days, from November 13<sup>th</sup> to 15<sup>th</sup>, 2012. This project seminar was born from the idea of Prof. Hee Sook Oh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rof. Hermann Gottschewski of Tokyo University, and had its inaugural conference at Tokyo University, Japan in 2011. The participants, mainly students, of the seminar had a great opportunity to share opinions and discuss some intense and profound topics, as well as building up friendly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cross the border.



발표주제는 'The Reconstruction of a Traditional Aesthetic Concept in Modern Shōmyō Performances', 'The Performance Analysis focused on 《Ballade op.23》 of F. Chopin', 'Polish Music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Franz Liszt's "The Hungarian Identity" on Music', 'Relationships of emotion and music in the mid-18th century Europe', 'The Concept of "Tonality" on Adorno's Philosophy of Music' 등 매우 다양했다. 일본 참가자들 중 자국의 음악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일본음악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그들이 바라보는 서양음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이번 세미나는 학문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류에도 기여했다. 둘째 날은 한국 방문이 처음인 참여 학생들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경복궁과 인사동 거리 등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짧은 시간이나마 관광하였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박창원 추모 음악회"를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연주회에 앞서 연주 작품에 관한 "작곡제전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것을 통해 그의 음악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본 참가자들은 연주자와 음악학자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형태의 음악회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하였다.

마지막 날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주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오희숙 교수님의 개회인사와 함께 국악과의 힐러리 핀첨-성 교수님과 헤르만 고체프스키 교수님의 렉처가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참여했던 학생들은 이를 전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수정하고 정리하여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음악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체가 된 세미나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사유했던 것들을 정리해 내어 놓는 과정은 상당히 의미 깊은 경험이었다.

세미나는 한국 참가자 중 한명이었던 박소라씨가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 콰르텟 K'와 국악과 이지영 교수님의 음악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었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일정을 좀 더 길게 계획한 일본 참여자들은 한국서양음악학회에도 함께했다. 그들은, 비록 영어 세션이 있었던 학회가 아니라서 자세히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의 음악학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얘기해 주었다.

세미나가 개최되었던 첫 해인 2011년, 나를 포함한 한국 참여자들은 일본에서 그들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 올해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나누고자 노력했지만 한정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시아권의 차세대 음악학자들 간의 만남은 양국 간의 학문적인 교류를 넘어 문화적 교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의 음악학자 및 학도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도 참여 학생들은 학업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메일 등을 통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관련하여 웹페이지 제작에 대한 의견 또한 꾸준히 나누고 있다.

다음 세미나에서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연구해야겠다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아시아의 음악학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2013년 7월 29일 도쿄에서 열린 '제3회 한일 차세대 음악학자 교환 세미나'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글 | 음악과 음악학전공 석사 류혜린



## 굿바이, 언덕방 언덕방 직원 박미숙 인터뷰

언덕방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간 자리를 지켜오던 음미대 식당(제2식당)이 곧 철거된다. 그 자리에는 몇 년 전부터 논의되었던 예술계 복합교육연구동이 들어설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음대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졌던 음미대 식당은 1월 15일부로 감골 식당으로 이전하였다.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음미대 식당의 얼굴이었던 박미숙 씨를 인터뷰 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째 서울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식권을 판매하고 있는 그는 음미대 식당에서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였다. 그 후 서당골(제4식당), 전망대(제3식당), 학생회관(제1식당)등에서 계속 하였고 최근에는 다시 음미대 식당으로 돌아와 5년간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식권을 판매하는 일 외에도 장부 정리와 보고, 메뉴 정리와 식당 야주머니들 출석 체크 등 식당 전반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수년간 음대 학생들을 보아온 소감이 어떠냐고 묻자 "다른 단대 학생들과 달리 훨씬 살갑고 다정하게 대해줘요."라며 음대생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었다. 또 "음대 학생들은 이색적이고 건강에 좋은 메뉴를 즐겨 찾는 것 같아요. 채식 뷔페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고요."라고 덧붙였다. 항상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아서 삶의 활력을 얻는다는 그는 지금 하는 일이 즐겁고 만족스럽다고 했다. 단지 가끔 음식이 떨어졌을 때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어릴 적 우연히 시작하게 된 일이 평생 직장이 될 줄은 몰랐으며 미소를 짓는 그는 학생들에게 줄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보람차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음대 학생들에게 "조금 멀더라도 계속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는 그의 밝은 미소를 그리워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학교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해주는 박미숙 씨를 볼 수 있길 바란다.

## 음대 학생 휴게실 개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4동 4층, 학과에서 운영하던 과방이 학생 휴게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음대의 특성상 따로 또는 같이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은 많지만 연습실 이외의 장소에서 색다르게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생겨난 것이다.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거나 개별 스테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었다. 또한 한 쪽에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세트가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음대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벽면이 마련되었다.

이번 학생 휴게공간 확충 사업은 학생 간 교류 촉진 및 학생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의 일부를 서울대 본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여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밝고 깔끔한 분위기의 휴게 공간을 반기며 친구들과 모임 및 각종 행사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의실과 가까운 곳에 휴게 공간이 위치한 것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하며 장소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2012년도 2학기 콩쿠르 입상자

### 동아음악콩쿠르 1위



김규리(비올라 · 11)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기악과 2학년 재학 중  
제52회 동아콩쿠르 비올라 부문 1위  
Just Viola 콩쿠르 고등부 1위  
서울 청소년 실내악 콩쿠르 금상  
예원콩쿠르 비올라 부문 대상  
음악교육신문사 현악 부문 1위 / 예진콩쿠르 1위  
바로크합주단 현악콩쿠르 비올라 부문 대상  
세계일보 콩쿠르 1위 / 음악춘추 콩쿠르 1위  
사사 : 최은식

### 동아음악콩쿠르 1위



남유리나(첼로 · 12)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기악과 1학년 재학 중  
부산일보 콩쿠르 2위 / 한국일보 콩쿠르 3위  
TBC 콩쿠르 2위  
예원실내악 콩쿠르 1위  
세계일보 콩쿠르 2위  
음연콩쿠르 1위 / 바로크 콩쿠르 1위  
고양시 콩쿠르 1위  
사사 : 백청심

### 2012 슈베르트 가곡 콩쿠르 1위 / 2013 비냐스 국제콩쿠르 Junior 2위



박희림(성악 · 10)

선화 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성악과 4학년 재학 중  
한국 독일가곡연구회 주최 독일가곡 콩쿠르 2위  
한국 슈베르트협회 주최 슈베르트 가곡 콩쿠르 1위  
Francisco Vinas international singing competition 2nd Prize Junior  
Francisco Vinas international singing competition Pianist 'Dalton Baldwin' Special Prize  
사사 : 서혜연

### 제3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가야금 금상



이서영(가야금 · 11)

서울대학교 국악과 2학년 재학 중  
제3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금상  
제1회 김병호류가야금산조경연대회 대상  
제26회 동아국악콩쿠르 은상  
제36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3위  
사사 : 송인길, 이지영, 오경희

### 제15회 객석예술평론상 우수상



신예슬(작곡이론 · 09)

계원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작곡이론과 4학년 재학 중  
제 15회 객석예술평론상 우수상 수상  
- "듣는 음악에서 읽는 음악으로"  
서울대학교 영화동아리 알라성 창립 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조연출  
지도교수 : 오희숙

### 동아음악콩쿠르 1위



윤지연(바이올린 · 10)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기악과 4학년 재학 중  
서울예고 제52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제38회 중앙음악콩쿠르 3위  
세계일보 음악콩쿠르, 국민일보 한세대 음악 콩쿠르 1위  
부산음악콩쿠르, 한국일보 음악콩쿠르 2위  
사사 : 김영옥

### 이대웅콩쿠르 대상 (11월)



이동민(성악 · 09)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제51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제6회 신영옥성악콩쿠르 1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27회 정기오페라 '라보엠' 주역  
제25회 한국성악콩쿠르 대상  
사사 : 윤현주

### 제22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



이지연(가야금 · 석사)

국립국악 중 · 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학과 석사과정 수료  
가야금 앙상블 사계 동인, 가야금 연주자협회 絲 회원  
제28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동상  
서울가야금경연대회 최우수상  
제29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동상  
제22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상  
사사 : 김정자, 이지영

### 제3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아쟁 금상



김용성(아쟁 · 11)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국악과 2학년 재학 중  
제15회 임방울국악제 금상  
제5회 세종음악콩쿠르 1위  
제28회 동아국악콩쿠르 은상  
제3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금상  
사사 : 김선일, 김영길

## 2012년도 2학기 콩쿠르 입상자 명단

전 공	이 름 / 학 번	대 회 명
<b>성악과</b>		
소프라노	이동민(09)	이대웅콩쿠르 대상 (11월)
	성이현(석사)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입상
테너	박희림(10)	2012 슈베르트 가곡콩쿠르 1위 2013 비냐스 국제콩쿠르 Junior 2위
소프라노	박주현(10)	연지 가곡콩쿠르 3위
	박수진(11)	더 뮤직 음악콩쿠르 1위
<b>작곡과</b>		
작곡	신나리(석사)	제1회 시흥작곡제 공모 당선
작곡이론	신예슬(09)	제15회 객석예술평론상 우수상
<b>기악과</b>		
피아노	박경선(11)	전국수리음악콩쿠르 1위
	이미연(10)	제31회 음연콩쿠르 1위
	한희준(09)	제31회 음연콩쿠르 2위
	박상우(09)	제31회 음연콩쿠르 3위
	김하은(12)	The 14th International Chopin Piano Competition in ASIA college Silver Prize(Professional Bronze Prize)
	이충호(09)	해외파견콩쿠르 2위
바이올린	윤지연(10)	동아음악콩쿠르 1위
	김여경(11)	동아음악콩쿠르 2위
첼로	남유리나(12)	동아음악콩쿠르 1위
기타	이예린(10)	동아음악콩쿠르 3위
	김근명(08)	대전국제기타콩쿠르 우수상
비올라	김규리(11)	동아음악콩쿠르 1위
트럼펫	박새록(10)	동아음악콩쿠르 3위
	정태진(08)	동아음악콩쿠르 2위
호른	이수진(09)	동아음악콩쿠르 3위
	고예랑(09)	동아음악콩쿠르 2위
트럼본	주인혜(10)	동아음악콩쿠르 3위
<b>국악과</b>		
실내악 콩쿠르	비움	제4회 대학국악제 대상
		제4회 국악실내악 페스티벌 금상
해금	최민지(09)	MBC 대학가요제 금상
	홍정희(10)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일반부 1위
가야금	박다솜(10)	제22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대상
	이지연(석사)	제22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
아쟁	이서영(11)	제3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가야금 금상
	김용성(11)	제3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아쟁 금상
피리	김보들샘(10)	제3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피리 동상
거문고	김한솔(09)	제3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거문고 은상
판소리	이진우(11)	제3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동상

학과 & 연구소 소식

# Wrap-up News of the Departments & Institutes

## 성악과

- 2012년 2학기
  - 10월 17일~18일 : 브라이언 제거(Brian Zeger, 줄리어드대 교수) 마스터 클래스
  - 10월 19일~20일 : 오페라 《라 보엠》 강동아트센터 공연
  - 11월 8일~10일 : 제27회 정기오페라 《라 보엠》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 공연
  - 12월 19일 : 성악과 후반기 세미나 및 체육대회
  - 2월 18일~19일 : 셰릴 스튜더(Cheryl Studer) 마스터클래스
  - 2월 20일 : 성악과 신입생 입학 전 프로그램 행사

- 2013년 1학기
  - 4월 : 성악과 총 세미나

## 작곡과

### \_\_작곡전공

- 2012년 2학기
  - 9월 17일 : 영문과 봉준호 교수 특강
  - 10월 8일 : 음악학자 존 로비슨(John Robison) 특강
  - 9월 20일 : 첼리스트 벤신 양(Wen-Sinn Yang) 콘서트
  - 9월 21일 : 첼리스트 벤신 양(Wen-Sinn Yang) 워크숍
  - 9월 24일 : 소프라노 유현아 콘서트
    - 작곡가 데이빗 루드윅(David Ludwig) 특강
  - 9월 26일 : 소프라노 유현아 워크숍
  - 9월 27일 : 작곡과 오회숙 교수 특강
    -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Schöberg, Pierrot Lunaire Op.21)
    - 작곡가 데이빗 루드윅(David Ludwig) 콘서트
  - 10월 29일 : SNU Young Pianists' Concert
  - 10월 30일 : 클라리네티스트 헨 할레비(Chen Halevi) 콘서트
  - 10월 31일 : SNU Young Composers' Concert
  - 11월 2일 : 클라리네티스트 헨 할레비(Chen Halevi) 워크숍
  - 12월 10일 :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Schönberg, Pierrot Lunaire Op.21) 콘서트
    - 지휘 에크하르트 클렘(Ekkehard Klemm)

- 2013년 1학기
  - 4월 9일 : 작곡가 Erik Lund(University of Illinois 교수) 특강 및 마스터 클래스
  - 5월 14일 : 작곡가 Gerald Chenoweth(Rutgers University 교수) 특강 및 마스터 클래스

### \_\_이론전공

- 2012년 2학기
  - 12월 13일 : 작곡과 이론전공 졸업논문 발표회

## 기악과

### \_\_피아노전공

- 2012년 2학기
  - 10월 7일~10일 : 메나헴 프레스러(Menahem Pressler) 초청 피아노솔로 및 실내악 마스터 클래스
  - 10월 23일 : 리처드 이가(Richard Egarr) 마스터 클래스
  - 10월 25일 : 요시카즈 나가이(Yoshikazu Nagai) 마스터 클래스
  - 11월 29일 : 신수정 피아노 마스터클래스
  - 2월 18일~22일 : IPA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제 피아노 아카데미
- 2013년 1학기
  - 4월 : 보아즈 샤론(Boaz Sharon) 마스터 클래스
  - 5월 10일 : 엔리코 엘리시(Enrico Elisi) 마스터 클래스
  - 5월 24일 : 로난 오하라(Ronan O'hara) 마스터 클래스

### \_\_현악전공

- 2012년 2학기
  - 9월 10일~11일 : 마르셀 바르동(Marcel Bardon) 첼로 마스터클래스
  - 9월 19일 : 벤신 양(Wen-Sinn Yang) 실내악 마스터클래스
  - 10월 5일 : 미하일 베레즈니츠키(Mikhail Berezniitsky) 비올라 마스터클래스
  - 10월 29일~11월 1일 : 배익환 바이올린 마스터클래스
  - 11월 18일 : Spirit of SNU Strings II
  - 11월 27일 :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회
- 2013년 1학기
  - 3월 14일 : 스티븐 테넨봄(Steven Tenenbom) 비올라 마스터 클래스
  - 5월 : 현악합주 정기공연
    -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

### \_\_관악전공

- 2012년 2학기
  - 8월 12일~14일 : 제주 국제 관악제 참가
  - 8월 31일 : Saxophone 마스터 클래스
  - 10월 3일 : WoodWind 마스터 클래스
  - 10월 29일 : Clarinet 마스터 클래스
  - 11월 23일 :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
  - 11월 30일 : SNU WIND Orchestra 찾아가는 음악회(인천연수여고 대강당)

- 2013년 1학기
  - 3월 22일 : Clarinet 마스터 클래스
  - 4월 26일 : 관악합주 연주회
  - 5월 23일 : MAY Concert(관악합주 연주)

### \_\_오케스트라

- 2012년 2학기
  - 11월 8일~10일 : 정기오페라 연주
  - 11월 26일 : 심포니오케스트라(해외)
  - 12월 12일 : 심포니오케스트라(외부)
- 2013년 1학기
  - 4월 8일 : SNU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교내1)
  - 5월 27일 : SNU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교내2)
  - 6월 22일 : SNU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예술의전당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

## 국악과

- 2012년 2학기
  - 9월 7일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주한 독일문화원 공동주최 창작 한국 음악 특별연주회
  - 9월 8일 : 2012 동양음악연구소 국제학술회의
  - 9월 18일 : 12학번 가야금 류파 발표회
  - 10월 20일 : 서울대학교 관악사 작은 음악회
  - 10월 31일~11월 21일 : 매주 수요일 서울대학교 박물관 수요 한국음악 연주회
  - 10월 23일 : 화요음악회 출연
  - 11월 2일 : 제54회 서울대학교 국악정기연주회
  - 11월 15일 : 정악합주 중강연주회
  - 11월 28일 : 창작음악발표회
  - 12월 12일 : 관악합주 중강연주회
  - 12월 14일 : 현악합주 중강연주회
  - 12월 18일 : 대학원 정기연주회
  - 12월 27일 : 12학번 황병기 가야금 작품발표회
    - 1월 7일~18일 : 지휘 특강 및 정악 특강
- 2013년 1학기
  - 3월 : 신입생 환영 음악회 / 신입생 연주회
  - 4월 : 봄 정기연주회
  - 5월 : 학부모 초청 음악회 / 해금반 연주회
    - 매주 수요일 박물관 수요 한국음악 연주회 / 국악과 교수 연주회
    - 가야금 신입생 연주회 / 민속악합주 연주회 / 정악합주 연주회
    - 관악합주 연주회
  - 11월 12일 : 제55회 국악 정기연주회

- 2012년 2학기
  - 1. 화요음악회
    - 9월 25일 : Duo Concert | Felix Olschofka(바이올린), 김진선(피아노)
    - 10월 23일 : SNU 국악실내악단, Trio S-Callia
    - 10월 30일 : 성악 앙상블이 흐르는 오후
      - SNU Vocal Ensemble (윤현주 교수 : 지휘)
    - 11월 6일 : 로맨틱한 음악으로의 초대
      - HARMONIA CHAMBER PLAYERS
    - 11월 13일 : Gabriel Chodos 피아노 독주회

- 2. 병원음악회
  - 11월 2일 : 보라매병원
  - 11월 9일 : 서울대병원(혜화)
  - 12월 21일 : 서울대병원(크리스마스 콘서트)

## 서양음악연구소

- 2012년 2학기
  - 1. 학술대회
    - Music Theory Forum with Thomas Christensen
    - 주 최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한국음악학회,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공동 주최
    - 일 시 : 2012년 7월 30일 ~ 8월 1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2. 정기간행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음악이론연구』 제19집 (2012년 2권) 발행 (발행일 : 2012년 12월 15일)

- I. 학술논문
  - 서의석, 「《롬바르디아 노인》(veillet lombard) 또는 최초의 이말리아 트루바두르의 정체」: 8-35.
  - 이진경, 「《광란의 오를란도》에 붙인 안드레아 가브리엘리의 마드리갈 연구 : “슬픔”의 시적 정서를 중심으로」: 36-57.
  - 이지연, 「베르디의 《리골레토》 듀엣들 : 관습적 양식, 그것의 응용, 그리고 탈피」: 58-95.
  - 이장직, 「성녀에서 귀부인으로 : 음악의 수호성인 체칠리아의 모습을 한 초상화」: 96-139.
  - 김성혜, 「음악영재교육과정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140-178.
- II. 지상 강좌
  - 김귀현, 「연주자 입장에서 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작품 109 음조직에 관한 연구」: 180-236.

- 3. 연구소 지원 학술 논문
  - 서의석(서양음악연구소 수석연구원) 「《롬바르디아 노인》(veillet lombard) 또는 최초의 이말리아 트루바두르의 정체」, 음악이론연구 19, 2012 : 8-35.

- 4. 평생교육
  - I. 공개강좌 운영
    - 음악실기과정.
    - 교회음악지도자과정.
  - II. 시민인문강좌 개최
    - 주 제 :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학
    - 주 최 : 서양음악연구소
    - 지 원 : 한국연구재단
    - 협약기관 : 인천중앙도서관, 보성여고, 제주대음악멘토링센터, 용진중학교
    - 일 시 : 2012년 9월 ~ 2013년 5월

- 2013년 1학기
  - 1. 특강
    - I. 바그너 학자 슈테판 뫼쉬 초청 특강
      - 일 시 : 2013년 3월 20일
    - II. 서양음악연구소 정기 학술연구 발표
      - 일 시 : 2013년 2월 26일
      - 장 소 : 서양음악연구소

- 2. 정기간행물
  - 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음악이론연구』 제20집(2013년 1권) 발행예정일 : 2013년 6월 15일
  - II. 평생 교육
    - 공개강좌와 시민인문강좌 계속 운영.

- 2013년 1학기
  - 1. 화요음악회
    - 4월 9일 : 사쿠라 색소폰 콰르텟
    - 4월 16일 : 국악 연주회
    - 4월 23일 : 학생 우승팀 연주회
    - 5월 21일 : 첼로 독주회
    - 5월 29일 : 피아노 독주회

- 2. 병원음악회
  - 5월~6월 중 공연예정

## 동양음악연구소

- 2012년 2학기
  - 1. 학술회의
    - 주 최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일 시 : 2012년 9월 8일
    - 1부 Max Peter Baumann, 「이문화간 담화 음악에서 이야기 구성」, 김진아, 「이문화간 음악의 수용과 습득: 한국과 독일 비교」, 전인평, 「서양음악 수입 이후 한국에 흐르는 순수주의와 명분론」
    - 2부 황중연, 「20세기 창작 국악관현악, 그 혼돈의 궤적」, 문옥배, 「교회음악, 서양음악 수용의 한 축」, 김지선, 「일본인 음악교원의 활동으로 본 근대 조선의 서양음악 수용」
    - 3부 Hillary V.Finchum-sung, 「국공립학교 국악교육의 현실: 국악강사풀제 프로그램 평가」, N.Seel, 「두 번째 고향 - 두 번째 타향」, 종합토론

- 2. 주최공연
  - 주 최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주한 독일문화원 공동주최
  - 일 시 : 2012년 9월 7일
  - 공 연 명 : 한국음악 특별연주회
  - 대 상 : 동양음악연구소 국제학술회의에 초대된 독일 학자들
  - 공연내용 : 이상천, 황병기, 정대석, 김정길, 전인평의 작품을 국악과 학생들이 연주

## 오페라연구소

- 2012년 2학기
  - 1. 강동아트센터 오페라 공연
    - 주 최 :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 강동아트센터 공동주최
    - 일 시 : 2012년 10월 18일 ~ 20일
    - 장 소 :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 공 연 명 : 오페라 '라 보엠'
    - 공연내용 : 오페라 연구소장 박세원 교수가 예술총감독을 맡고, 본교 김덕기 교수가 지휘, 박헌재 교수 및 강사들을 비롯 오페라연구소 출신 연구원들이 주·조역을 맡아 열연하였으며, 성악과 학생들과 기악과 학생들이 연주에 참여하였음.

- 2. 정기오페라 공연
  - 주 최 :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일 시 : 2012년 11월 8일 ~ 10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 공 연 명 : 음악대학 제27회 정기오페라 '라 보엠'
  - 공연내용 : 연구소장 박세원 교수가 예술총감독을 맡았고, 김덕기 교수·김현수 선생이 지휘, 성악과 학생들이 주·조역을 맡아 열연하였으며, 성악과 합창단 및 기악과 SNU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연주에 참여하였음.

## Obituaries

# 추모하는 마음으로

### 故 김용진 명예교수 E. Prof. Yongjin Kim



- 1957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1960 동 대학원 작곡과 졸업
- 1970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 작곡 석사과정 졸업
- 1970-95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김용진 작곡과 명예교수가 2012년 9월 15일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30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 서울대 음악대학 작곡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渡美), 1970년 일리노이주립대학(Illinois State University) 작곡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졸업 직후 바로 서울대 교수로 부임해 25년 동안 봉직하였다. 《여호와의 영광》, 《관현악을 위한 '수상'》, 《피아노를 위한 '환상'》 등을 작곡한 고인은 아시아작곡가연맹 부회장, 전국음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작곡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작곡상,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받은 바 있다.

### 故 이성균 명예교수 E. Prof. Seongkyun Lee



- 195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1966-9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
- 1995-97 제13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장
- 2003 대한민국예술원상

피아니스트 이성균 기악과 명예교수가 2012년 9월 27일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1934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 및 동 대학원에서 고 김원복 명예교수에게 피아노를 배웠고, 미국 맨해튼음악학교(Manhattan School of Music)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1960년부터 한양대 교수로 지내다 1966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하여 33년 동안 후학을 양성했다. 제13대 서울대 음악대학장 및 한국피아노협회장을 역임했고, 대한민국예술원 음악 부문을 수상했다.

### 故 장정익 명예교수 E. Prof. Cheng-iek Chang



- 1975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1985 독일 슈투트가르트국립음악대학 작곡 석사과정 졸업
- 1985-89 대구가톨릭대, 건국대 교수
- 1989-201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장정익 작곡과 명예교수가 2012년 12월 18일 향년 67세로 별세했다. 1946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고인은 여수고, 서울대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도독(渡獨), 1985년 슈투트가르트(Stuttgart) 국립음대 작곡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1985년부터 대구가톨릭대 음악대학, 1986년부터 건국대 사범대학에서 재직하다 1989년 서울대로 부임, 21년간 교수직을 수행했다. 2012년 초 명예교수로 추대된 지 1년도 안되어 별세한 고인은 《금관 7중주를 위한 '풍장'》, 《관현악을 위한 '남해'》, 《'명' 시리즈》 등을 작곡하고 국제현대음악협회 이사, 국제범음악제 운영위원장, 미래악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 Faculty News

## 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Music

**박세원 교수, 충무아트홀 대극장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주역 및 예술 총감독**  
 Prof. Se-Won Park, appointed as the new chief art director and the main character of the opera (La Traviata) of Chung-mu Art Hall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10월 13일~14일 열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서 주역 알프레도역과 함께 예술 총감독을 맡았다. 10월 19일~20일에는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라 보엠> 공연과 11월 8일~10일에는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음악대학 정기오페라 <라 보엠> 공연의 예술 총감독을 맡았다.

**윤현주 교수, 예술의 전당 '프리마돈나 앙상블 연주회' 참여**  
 Prof. Hyun-Joo Yun, participated in 'Prima Donna Ensemble Concert' in Seoul Arts Center

호암교수회관에서 9월 26일 열린 생활과학대학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강연자로 초청받아 오페라감상법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10월 30일에는 문화관 중강당에서 '성악 앙상블이 흐르는 오후'라는 공연주제로 관악주민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화요음악회를 지휘하였고, 12월 7일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프리마돈나 앙상블 연주회에 참여하였다.

**서혜연 교수, '제26회 Iris Adami Corradetti' 국제 성악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초청**  
 Prof. Hye-Yeon Seo, invited as one of the panel for the international Vocal Music Competition 'the 26<sup>th</sup> Iris Adami Corradetti'

7월 17일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부천시립합창단 협연 '이태리 낭만주의 오페라 여행이야기'에서 독창자로 협연하였다. 10월 9일~13일까지는 이탈리아 Padova에서 열린 '제26회 Iris Adami Corradetti' 국제 성악콩쿠르 심사위원으로, 10월 19일~23일에는 제4회 신한음악상 성악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초청되었다. 12월 17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는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문화예술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박미혜 교수,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 출연**  
 Prof. Mi-Hae Park, invited as a guest performer of 'MBC Autumn Night of Lieder' held in the Grand Hall of Se-jong Center

지난 9월 22일~2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에 출연하여 가곡 연주를 하였다. 11월 30일에는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마티네 콘서트'에 출연하였고, 12월 11일에는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합동 강연회에 초청받아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박현재 교수, 국립오페라단 초청 오페라 <라보엠> 공연에서 로돌포 역으로 출연**  
 Prof. Hyun-Jae Park, performed as (Rodolfo) in the opera (La Boheme) invited by the National Opera of Korea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9월 21일 열린 오페라 <카르멘> 공연에서 주역(돈 호세)으로 출연하였다. 10월 12일에는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대구창작오페라 개막공연에서 젊은 박태준 역으로 출연하였으며, 12월 8일 목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국립오페라단 초청 오페라 <라보엠> 공연에서 주인공인 로돌포 역으로 출연하였다.

**연광철 교수,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초청으로 오페라 <트로이인들 Les Troyens>에서 '나발 Narbal' 역으로 출연**  
 Prof. Gwang-Chul Youn, performed as the character 'Narbal' in the opera (Les Troyens) upon the invitation of Metropolitan Opera House of US

독일 바이로이트 극장의 초청으로 지난 8월(2, 11, 16, 22, 28일) 오페라 <파르지팔> 구르네만츠(Gurnemanz)역으로 출연하였다. 10월 5일에는 충주시 한마음콘서트에 특별 초청받아 충주문화회관에서 독창회를, 10월 26일에는 고양아람누리 하이든홀에서 '베이스 연광철 독창회'를 열었다. 12월(3, 17, 21, 26, 29일)에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초청으로 오페라 <Les Troyens>에서 'Narbal' 역으로 출연하였다.

##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정태봉 교수, 2012 진주사랑한국작곡가회 “창작가곡의 축제”에서 가곡 〈의암〉 초연**

Prof. Tai-Bong Chung, had the premiere performance of his lied 《Ui-am》 at the "Contemporary Lied Festival"

부암아트홀에서 9월 17일 열린 “한국가곡연구소 작곡가시리즈Ⅱ – 정회갑의 가곡” 연주회에서 《‘한국적인 멋’의 실체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작곡가 정회갑의 가곡에 대해 강연하였다. 11월 2일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클라리네티스트 Chen Halevi 초청 음악회”에서 《클라리넷 솔로를 위한 “길”》이 연주되었으며, 11월 5일 세종체임버홀에서 열린 “우리노래펼침이 여덟 번째 모임” 음악회에서는 가곡 3편 《자장가》, 《눈》, 《나그네》가 연주되었다. 또한 11월 22일에는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창작 페스티벌”에서 교향시 《백두대간》이 연주되었고, 12월 18일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창작가곡의 축제”에서 정태봉 교수의 가곡 《의암》이 초연되었다.

**이돈웅 교수,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개·폐막 기념 공연 참여**

Prof. Donoung Lee, took part in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y concert of the 7<sup>th</sup>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9월 15일과 11월 3일에 각각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의 개·폐막 기념 공연에서는 이돈웅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센서악기 연주그룹 “iHEAB(Interactive Hybrid Electro-Acoustic Band)”의 《Let’s Play》가 공연되었다. 《Let’s Play》는 널뛰기, 제기차기, 방아 찧기, 강강술래 등의 전통놀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한 하이브리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로, 센서를 부착한 피지컬 컴퓨팅 놀이 기구에 관객이 참여하여 play하면 그에 상응하여 놀이기구에 빛과 함께 사운드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관객들의 큰 흥미를 끌었다. 10월 24일 열린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12”에서는 iHEAB의 네 명의 작곡가 겸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숨소리, 말소리 등 여러 가지 음향 재료를 각각의 센서와 컨트롤러 등의 전자악기를 거쳐 ‘진화’시키는 형태의 작품, 《the evolutive voyage》가 공연되었다.

**전상직 교수, 제31회 대한민국작곡상 수상**

Prof. Sang-Jick Jun, was awarded the 31<sup>st</sup> Korean Composer Award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에서 8월 20일 열린 서울클라리넷 앙상블 연주회에서 《“Accord Reciproque” for Clarinet Choir》가 연주되었다. 9월 12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박혜진 오보에 리사이틀에서는 《“Linie-V” for Oboe and Piano》가, 9월 22일에 열린 채리티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는 《“7” for Clarinet, Violin, Cello and Piano》가 연주되었으며, 9월 27일에는 서울대학교 예술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작곡가 David Ludwig 콘서트”에서 바이올리니스트 Bella Hristova의 연주로 《“Before & After” for Violin Solo》가 연주되었다. 10월 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2 가곡음악회 우리시 우리노래”에서는 가곡 《새봄의 기도》가 연주되었으며, 11월 22일 “대한민국 창작 페스티벌”에서는 《4 Lieder for Soprano and Piano》가 제31회 대한민국작곡상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그 중 《새봄의 기도》와 《벌레소리 송》이 연주되었다. 11월 24일에 대안공간 루프에서 열린 “제2회 화음 프로젝트 페스티벌”에서는 《“4 Compositions with 3 Interludes” for String Trio》가 연주되었다.

**이신우 교수, 미주지역 음악대학 순회 강연 및 연주**

Prof. Shinuh Lee, went on the lecture tour around the music colleges and conservatories in the North America region and performed

9월 20일 “서울대학교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첼리스트 Wen-Sinn Yang 초청 음악회”에서 《“Expression” for violoncello》가 연주되었고, 10월 6일에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선우지현 클라리넷 독주회에서 《Concerto for clarinet and orchestra》가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초연되었다. 또한 11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커티스 음대, 인디애나 음대, 럿거스 대학, 위스콘신 대학, 웨스트민스터 음대 등 미주지역의 음악대학을 순회하며 《My music since 1999 – Insight, inspiration & musical expression》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이신우 교수의 《Chorale Fantasy for piano-Comfort, comfort my people》가 연주되었다.

**최우정 교수, 트리오 탈리아 창단 1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작품 《“Looper” for Piano Trio》 초연**

Prof. Uzong Choe, held the premiere performance of 《Anak for Geomungo and percussion instruments》

9월 9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거문고연구회 동보악회 정기연주회”에서 《“Anak” for Komungo & Percussion》이 위촉·초연되었고, 9월 13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TIMF앙상블과 함께하는 실내악 시리즈”에서는 《“Im Himmel gegraben” for String Quartet》이 연주되었다. 9월 19일에는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열린 “트리오 탈리아 창단 1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Looper” for Piano Trio》가 위촉·초연되었으며, 11월 4일 런던 위그모어 홀에서 열린 Grace Yeo 피아노 리사이틀과 11월 8일 뉴욕 링컨센터 Alice Tully Hall에서 열린 Klara Min 피아노 리사이틀, 그리고 12월 21일 일신홀에서 열린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듀오 콘서트에서는 《“Preludes” for Piano》가 연주되었다. 11월 14일 치악예술관에서 열린 “원주시향 제7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뮤지컬 《Happy Prince》중 3곡이 소규모 관현악 편성으로 편곡·연주되었고,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열린 “스트린드베리이 100주기 기념 페스티벌”에서는 최우정 교수가 작곡으로 참여한 연극 《꿈》이 공연되었다.

**Roland Breitenfeld 교수, 국악기와 전자음향을 위한 《Gourd(포,匏) 12》와 《Wood(목,木) 12》 초연**

Prof. Roland Breitenfeld, held the premiere performance of 《Gourd 12》 and 《Wood 12》 for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electronic sounds

지난 9월 13일, E-Werk Freiburg 대공연장에서 열린 프라이부르크 작곡가협회 주최 음악회 “5 Positionen”에서 《“Les couleurs du Midi #1” for oboe, piano and percussion》이 연주되었다. 10월 12일에는 소리울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피리 연주자 가민의 “8음(八音)잇기” 공연에서 국악기와 전자음향을 위한 《Gourd(포,匏) 12》와 《Wood(목,木) 12》가 위촉·초연되었으며, 12월 12일에는 프라이부르크에서 열린 Elisabeth Schneider Stiftung 주최 음악회에서 《“Flying Leaf” for janggo, percussions, dance and electronics》가 유럽 초연되었다.

**임헌정 교수, 예술의 전당 창립 25주년 기념음악회 : 코리안 월드 스타 시리즈-사라 장 & 부천필하모닉 지휘**

Prof. Hun-Joung Lim, conducted the "Seoul Arts Center 25<sup>th</sup> Anniversary Celebration Concert : Korean World Star Series-Sarah Chang & Bucheon Philharmonic"

지난 10월 5일 부천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에서 주페의 《경기병 서곡》 등을 지휘하였고, 11월 23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베토벤 《교향곡 6번》 등을 지휘하였다. 12월 17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는 브람스 《교향곡 3번》 등을 지휘하였으며, 12월 31일 열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야음악회에서는 푸치니, 모차르트, 비제의 오페라 아리아 등을 지휘하였다. 1월 25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에서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을, 2월 15일 “예술의 전당 창립 25주년 기념음악회 : 코리안 월드 스타 시리즈-사라 장 & 부천필하모닉”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과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지휘하였다.

**김덕기 교수, 서울대학교 오페라 《라 보엠》 지휘**

Prof. Doc-Ki Kim, conducted the opera 《La Bohèm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지난 9월 21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콘서트 《카르멘》을 지휘하였다. 10월 5일과 10월 26일 개최된 베이스 연광철(성악과 교수) 리사이틀에 피아노 반주로 참여하였으며,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2012 고양국제음악제”에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지휘하였다.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오페라 《라 보엠》을 지휘하였고, 12월 15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호두까기 인형》 공연과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2012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지휘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립예술단체와 함께하는 2012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사천, 나주, 부여, 울진, 문경 등에서 열린 음악회들을 총 7회 지휘하였다.

##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이석원 교수, 연구서 『음악의 지각과 인지 II』 발행**  
**Prof. Suk Won Yi, published 『Perception and Cognition of Music II』**

이화여자대학교에서 11월 3일 열린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제24차 심포지엄’에서 ‘음악과 뇌를 위한 소나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12월 8일 연세대학교에서는 ‘Homo Musicus의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한국음악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음악의 지각과 인지 II』라는 제목의 연구서(음악세계)를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와 공동책임편집으로 발행하였다.

**민은기 교수, 경향신문 [문화비평] 칼럼 연재**  
**Prof. Eungi Min, has published monthly column [Cultural Critics] in Kyung-Hyang Daily Newspaper since last July**

지난 7월부터 매월 경향신문 [문화비평] 칼럼의 집필을 맡아 연재하고 있다.

**오희숙 교수, 저서 『음악과 천재』(서울대 출판문화원) 발간**  
**Prof. Hee Sook Oh, published 『Music and Geniu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저서 『음악과 천재 : 음악적 천재미학의 역사와 담론』(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과 편서 『음악, 말 보다 더 유창한: 현대 독일·영미 음악미학의 논의를』(음악세계)를 출간하였고, 예술원 논문집에 논문 「백남준의 음악시학」을 발표하였다. 지난 9월 27일에는 STUDIO2121가 진행한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작품 탄생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에서 Special Lecture를 하였다. 10월 15일부터는 폴란드의 브로츠와 대학교 (University of Wrocław)에서 두 번의 초청강연을 하였다.

##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백청심 교수, 한국음악협회 주최 “2012년 한국 음악상 본상” 수상**  
**Prof. Chung-Sim Baik, received the "2012 Korean Music Award" hosted by 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

지난 2012년 10월 26일 부천시민회관에서 부천 필하모닉 정기연주회 “불멸의 클래식 시리즈”로 엘가(E. Elgar)의 《첼로 협주곡 Op.83》을 협연하였으며, 11월 18일 현악과가 주최하는 정기연주회인 “Spirit of Snu Strings II”에서 드보르작(A. Dvorak)의 《현악 6중주》를 연주하였다. 그리고 2013년 1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한국음악협회 총회에서 “2012년 한국 음악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김영률 교수, ‘2012 아침을 여는 클래식’ 공연에서 아울로스 목관 5중주 연주**  
**Prof. Young-Yul Kim, performed in Korean Aulos Wind Quintet for 2012 Morning Classic Series**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7월 14일 열린 서울뮤즈윈드오케스트라의 11회 정기연주회이자 사단법인 축하연주회에서 W.A. Mozart의 ‘Sinfonia Concertante’ in E-flat Major for Oboe, Clarinet, Horn, Bassoon and Orchestra에서 호른 협연자로 참여하였다. 8월 11일부터 1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는 제주국제관악제에 서울대학교 관악합주인 SNU Wind Ensemble이 초청되어 연주자로 참가하였다. 11월 23일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SNU Wind Ensemble의 51번째 정기연주회의 지휘를 맡아 슈반트너(J. Schwantner)의 《... and the mountains rising nowhere》, 하비슨(J. Harbison)의 《Music for 18 Winds》, 코플랜드(A. Copland)의 《El Salon Mexico》 등을 연주하였으며, 협연에는 보스턴심포니 트럼본 수석연주자인 토비 오프트(Toby Oft)가 참여하였다. 특히 앵콜곡인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관악편곡 버전은 인터넷사이트인 “Youtube”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12월 11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2012 아침을 여는 클래식 <그 남자를 만나...>”의 공연으로 아울로스 목관 5중주의 연주에 참여하였다. 12월 14일 천마아트센터에서는 코리아호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 객원 지휘를 하였다.

**최은식 교수, ‘Just Vivace Festival’에서 음악감독으로 연주회 개최**  
**Prof. Ensik Choi, participated and hosted the concert in 'Just Vivace Festival' as the Music Director**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9월 9일에 “Heart of JVf”라는 이름으로 Just Vivace Festival의 음악감독으로 첫 연주회를 열었다. 9월 16일에는 시카고 필하모니와 뉴욕 필하모니 악장, 부악장 등 여러 세계적인 학생들을 배출한 Cross Roads 고등학교 동문음악회 실내악 연주를 Colburn School에서 진행하였다.

**최희연 교수, 금호아트홀 기획공연 ‘아름다운 목요일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I’에서 연주**  
**Prof. Hie-Yeon Choi, performed in the Beethoven Piano Trio Series I of Kumho Art Hall**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9월 12일 열린 Studio2021 Performer’s Studio I 프로젝트에서 Cellist Wen-Shin Yang과 연주하였다. 10월 4일에는 금호아트홀 기획공연, 아름다운 목요일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I에서 Violinst 김수빈, Cellist 송영훈과 연주하였다. 11월에는 서울대학교 MOA 미술관 주최로 피아니스트 최희연교수의 초청 랙터콘서트 ‘음악이라는 언어’가 개최되었다.

**최경환 교수, 2012 SNU Wind Orchestra의 찾아가는 음악회 지휘**  
**Prof. Kyung-Hwan Choi, conducted the "2012 Visiting Concert of SNU Wind Orchestra"**

지난 11월 30일 인천연수여고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2 SNU Wind Orchestra에서 지휘자로 참여하여, 플룻 정민영 학생의 협연으로 바그너(R. Wagner)의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Die Meistersinger von Nürnberg》,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의 《Sound of Music》,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제 2》 제임스 스웨어링엔(James Swearingen)의 《Majestia》, 페란(Frerrer Ferran)의 《Desert Storm Symphony No.1》 등을 연주하였으며, 인천연수여고 학생과, 인천여자중학교 학생들을 초대하여 학생들에게 관악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음악에 대한 친근감을 더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이경선 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 예술의 전당 화음챔버 송년 음악회 연주**  
**Prof. Kyung Sun Lee, performed in the Year-End Concert of Seoul Arts Center Harmony Chamber upon the invitation of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12월 12일 개최된 화음챔버 송년음악회에 참여하였고, 12월 18일에는 금호아트홀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공연에서 브람스의 《현악 5중주 2번》을 연주하였다. 1월 18일에는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에서 정치용의 지휘로 창원과 마산에서 협연하였다.

**주희성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과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  
**Prof. Hee-Sung Joo, played full series of Beethoven's Sonata with Violinist Ho-young Pi**

2월 28일, 6월 24일에 걸쳐 2013년 2월 5일까지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과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 중에 있다. 이 음악회는 1년 안에 전곡을 연주하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또한 11월 6일 금호아트홀 토너스 트리오 정기연주회에 참여하였다.

**윤혜리 교수, 금호아트홀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연주 참여**  
**Prof. Hye-Ri Yoon, participated and performed in the performance of Kumho Art Hall Chamber Music Society**

창천아트홀(압구정) 11월 24일 열린 KFEA Flute Orchestra Starry Night Concert에서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연주에 참여하였다. 이 날은 로시니(G. Rossini), 타파넬(P. Taffanel), 뵘(T. Boehm), 도플러(F. Doppler), 포레(G. Faure) 등의 곡들이 연주되었다. 10월 23일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는 2012 예술의 전당 앙상블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금호아트홀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연주가 있었다. 이날 프로그램은 작곡가 뿔랑(F. Poulenc)의 곡으로 구성되었는데, 윤혜리 교수는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P.43》을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연주하였고, 《피아노,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을 위한 6중주 FP.100》을 연주하였다.

##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백주영 교수, 예원학교 학생들과 함께 소아암환자돕기공연 ‘아뉴스데이 앙상블’ 연주**  
**Prof. Ju-Young Baek, participated and performed in the 'Agnus Dei Ensemble' charity concert for children cancer patients with students of Yewon school**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10월 29일 서울신문 주최한 〈서울신문 가을밤 콘서트〉에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였다. 11월 23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대 제자들, 예원학교 학생들과 함께 소아암환자돕기공연 ‘아뉴스데이 앙상블’ 연주를 하였다. 이날 공연의 수익금은 모두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돕기 기금으로 기부되었다. 12월 7일에는 세종 체임버홀에서 ‘앙상블 오푸스 클래식 환타지아 2 겨울밤의 이야기’에서 진규영 〈시인 고은 작품에 의한 피아노〉와 드보르작〈피아노 4중주 A Major Op. 81〉 등을 연주하였다.

**박종화 교수, ‘Un-plugged 다시, 날다’ 전국 독주회 투어**  
**Prof. Jong-Hwa Park, had the nationwide concert tour 'Un-Plugged: Fly Again'**

Sony Music과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2번〉, 〈악흥의 순간 Op.16〉과 무소르그스키/호로비츠 편곡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녹음 작업하여 ‘Heroes’란 이름으로 새 앨범을 발매하였다. 또한 앨범 수록곡 중 일부를 포함하여 ‘Un-plugged 다시, 날다’란 제목으로 전국 독주회 투어를 가졌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연극실험실 해동동 1번지에서는 연극배우 조판수와 함께 1인극 〈노베첸토〉를 공연하였다.

**Reichert Aviram 교수, ‘Grium 피아노 콰르텟’ 멤버들과 실내악 연주**  
**Prof. Reichert Aviram, played chamber music with 'Grium piano Quartet'**

8월 13일 부산 영화의 전당 하늘극장에서 Grium 피아노 콰르텟 실내악 연주회를 가졌다. Grium 피아노 콰르텟은 Reichert Aviram, 조재혁 교수, 이형민 교수, 피아니스트 손열음, 네 명의 피아니스트로 이루어진 피아노 콰르텟이다. 또한 Grium 콰르텟은 지난 2012년 8월 14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12회 대전 실내악 축제에서 연주하였다. 8월 17일에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청소년음악회2-청소년을 위한 아르츠 콘서트에, 11월 16일에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인의 열정 콘서트에 참여하여 포항시립교향악단과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하였다.

## 국악과 Department of Korean Music

**정대석 교수,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한중문화예술제 〈通〉에서 거문고 독주곡 〈달무리〉 연주**  
**Prof. Dae-Seok Jeong, performed Geomungo solo 〈Dalmuri〉 in the 2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 establishment Celebration Festival**

일본 동경 기요이홀에서 6월 29일 개최된 ‘한국의 풍류’ 공연에서 《평조 회상》 전곡을 양주풍류악회와 함께 연주하였다. 10월 5일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한중문화예술제 〈通〉에서는 거문고 독주곡 〈달무리〉를 연주하였다. 이날은 한중 양국의 문화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양국의 문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11월 3일~4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양일간 개최된 제8회 〈창신제〉에서 양주풍류악회와 함께 〈취타〉를 연주하였다.

**임재원 교수,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세종시 초청 연주회 지휘**  
**Prof. Jae Won Lim, conducted for DaeJeon Yeon-Jung Municipal Orchestra of Korean Music in Sejong City's invitation Concert**

지난 7월 4일과 10월 10일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최한 AMP(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한국음악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10월 15일 세종시가 주최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세종시 초청 연주회(세종시 세종문화회관)를 지휘하였고, 11월 2일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주최한 제54회 국악과 정기연주회(국립국악원)를 지휘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충청남도도가 주최한 대전시립 충남도청 이전 기념 축하 연주회(충남대 정심화홀)를 지휘하였다. 11월 29일에는 대전시가 주최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기획연주회(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12월 13일은 대전시가 주최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2012 송년음악회(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등을 지휘하였다.

**양경숙 교수, 해금연구회 20주년 기념공연 기획 및 감독**  
**Prof. Kyung Sook Yang, directed and planned the Haegum Research Institute's 20<sup>th</sup> Anniversary Celebration Concert**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8월 12일 열린 해금연구회 20주년 기념공연에서 해금연구회의 회장으로서 공연의 기획 및 감독을 맡았으며 함녕지곡을 연주하였다. 또한 같은 날 연구회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창작곡집 및 음반을 발간하였다. 9월 4일에는 국립부산국악원 상설 100회 기념공연에 초청되어 함녕지곡, 천년만세 등 정악곡과 해금연구회 위촉 창작곡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11월 29일에는 남산국악당에서 열린 중요무형문화재 김영기 가곡 독창회 《태평성대》에서 가곡 반주를 맡아 연주하였다. 12월 18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는 《왕조의 꿈 태평서곡》 공연이 열렸다. 본 공연은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재연한 무대로 양경숙 교수는 혜경궁 홍씨 역으로 출연하였다. 18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본 공연은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각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혜경궁 홍씨의 역할을 맡았다.

**이지영 교수, 『현대가야금기보법』 2012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Prof. Ji-Young Yi, her publication 『Contemporary Gayageum Notation』 was selected as the excellent academic publication by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Seoul Art Market 초청으로 10월 10일 외국 공연기획자를 위한 가야금 연주회를 삼청동 청운산방에서 ‘Silk, Wood, and Soul: The Timeless Sound of Gayageum’이라는 타이틀로 가졌다. 이날은 전통음악 ‘영산회상’, ‘서공철류 산조’와 황병기 작곡 ‘춘설’, Donald Womack 작곡 ‘Highwire Act’ 등이 연주되었다. 11월 29일에는 남산국악당에서 열린 김영기 여창가곡 독주회 ‘태평성대’에 가야금 반주자로 참여하였고, 12월 14일에는 강릉단오문화관에서 열린 강릉국악방송 개국 기념공연 ‘강릉, 국악을 품다’ 초청으로 가야금과 현악스트링을 위한 ‘산관동별곡’을 연주하였다. 12월 18일 ‘2012 KBS 국악대상’에서 현악상을 수상하고, KBS 국악관현악단과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을 협연하였다. 또한 12월 저술한 연주가와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보법』이 2012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이 책은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2판 인쇄를 마쳤다.

## 국악과 Department of Korean Music

**김승근 교수, Koreanischer Musiktak in Karlsruhe 2012에서 ‘Hommage à Cage’ 작곡 및 발표**  
**Prof. SngKn Kim, composed and presented his piece 'Hommage à Cage' in Koreanischer Musiktak in Karlsruhe 2012**

Hochschule für Gestaltung Karlsruhe에서 10월 1일 열린 Koreanischer Musiktak in Karlsruhe 2012에서 ‘Hommage à Cage’를 작곡 및 발표하였다.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는 박물관 수요 한국음악 연주회를 기획하였고, 11월 29일에는 북촌창우극장에서 공연된 음악극 ‘심청 이야기’에 제작 및 작곡으로 참여하였다.

**핀침성 교수, Asia Pacific Music Meeting 주최 「창작 국악의 현황 및 해외 진출 방안」에서 토론자로 참여**  
**Prof. Hilary Finchum-Sung, participated as a debater in 『Present State of Korean Creative Music and oversea expansion plan』 hosted by Asia Pacific Music Meeting**

서울대에서 9월 9일 열린 동양음악연구소 국제학술회의에서 「국공립학교 국악교육의 현실: 국악강사풀제 프로그램 평가」를 발표하였고, 9월 20일 국악원주최로 열린 ‘동양음악학 제주 국제학술회의’에서 논평을 맡았다. 10월 6일에는 울산에서 에이팜(Asia Pacific Music Meeting) 주최로 열린 「창작 국악의 현황 및 해외 진출 방안」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10월 20일 이화여대 음악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음악과 근대성의 발견’에서는 좌장으로 참여하였다. 11월 1일 미국 뉴올리언즈의 Society for Music Theory Joint Meeting에서는 “Modes of Music Circulation and Their Effects”에 대해 패널로 참석하였다. 더불어 10월 11일에는 팜스(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에서 초청 강연이 있었고, 10월 19일 경주에서 열린 Non-Governmental Perspectives on UNESCO World Heritage Seminar에 초청되어 “Performance and Practice of Musical Heritage: The Music Festival in the USA and the ROK”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10월 27일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학강의 세미나에서 초청 강연을 하였다.

## 동문소식



최근 작곡가 박영희의 작품 《초희와 상상의 춤》이 독일 지멘스 음악재단의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녀는 서울대 작곡과 졸업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한 후에 스위스 보스월 세계작곡제, 파리 유네스코 작곡 콩쿠르, 독일 하이델베르크시 선정 여성작곡가상을 수상한 바 있고, 1980년 도나우싱엔 음악제 위촉곡을 작곡, 2006년 슈투트가르트 세계현대음악제에 초청되었으며 1994년~2011년까지 브레멘 국립예술대 주임교수직을 맡았다.

작곡가  
**박영희** (65학번)

작곡가 진은숙은 2012년 제 22회 호암상 예술상을 수상하고 2013년 루체른 페스티벌 상주 작곡가 및 로슈 커미션에 선정되었다. 그녀는 1985년 가우데아무스 국제작곡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일본 국제작곡콩쿠르 1위, 부르주 국제 전자음악 작곡콩쿠르 1위, 그라베마이어상 수상, 아놀드 쇤베르크상, 독일 베를린공과대학 전자음악스튜디오 작곡가,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작곡가, 통영국제음악제 상임 작곡가,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 작곡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작곡가  
**진은숙** (81학번)



서울시향 전 호른 부수석 호른리스트 김홍박(30)은 최근 스웨덴 왕립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의 제2수석으로 영입되었다. 김홍박은 14세부터 호른을 시작하여 서울예고 진학 후 서울대에서 수학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기량을 인정받아왔다. 다년간 서울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수석을 역임하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 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트테움에서 공부하던 중 2007년부터 서울시향에 합류해 부수석으로 4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금관 악기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오기와 근성이 생긴다. 호른 연주자로서 클래식 본고장에서 어디까지 통할 수 있는지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호른리스트  
**김홍박** (00학번)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는 지난 2011 차이나 국제 콩쿠르 우승과 함께 받은 '중국 연주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다. 또한 김봄소리는 2013년 1월 25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2013년 첫 음악회였던 '마에스트로+비르투오조 1'의 첫 무대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장식했다. 김봄소리는 서울대음대 기악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2010 센다이 국제 콩쿠르 최연소 4위 입상 및 청중상 수상, 2010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입상, 2011 차이나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2012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5위에 입상한 바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08학번)





# 빨간 우체통



## 어디에? 54동 음악대학 1층 로비

음악대학 소식 제11호 | 2013년 3월 1일 발행

발행인\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영률

기획\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학장 전상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_ 오희숙 기획홍보실장(작곡과 교수)

편집위원\_ 김혜영 기획홍보실

박성우 작곡과 이론전공

신예슬 작곡과 이론전공

최효미 작곡과 이론전공

배주영 음악춘추사 기자

영문\_ 스노버 고운 작곡과 이론전공

사진\_ 김문기 음악춘추사 사진부장

디자인/제작\_ 곡동D&C(주)

College of Music Magazine Vol.11

Publisher\_ Prof. Young-Yul Kim,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r\_ Prof. Sangjick Jun, Associate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 Editorial Committee

Editor\_ Prof. Hee Sook Oh, Department of Composition, Chai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Editorial Board\_ Hye Young Kim, Staff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Sung-woo Park BA course in Musicology

Yesul Shin, BA course in Musicology

Hyomi Choi, BA course in Musicology

Ju Yeong Bae, Journalist CHUNCHU Music Publishing

English\_ Gowoon Kim Snover, BA course in Musicology

Photo\_ Moongi Kim, Chair of the Photo Department, CHUNCHU Music Publishing Co.

Design/Printing\_ Keuk Dong Design & Communication Co. Ltd.